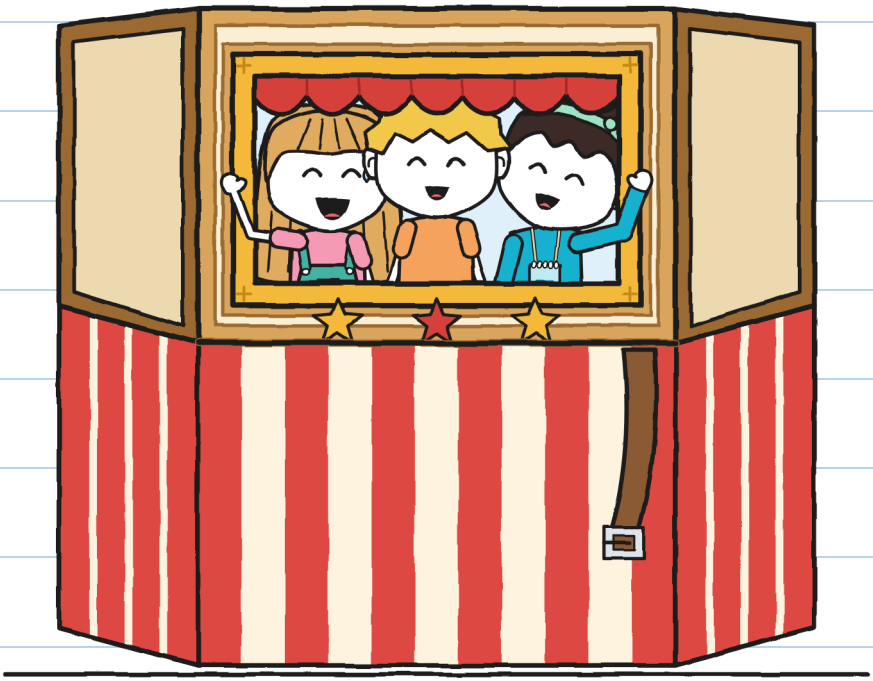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6

# 자리 하나, 우리 셋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XS
처음 읽기 · 5+

# 불가능 배달 · 6

## 자리 하나, 우리 셋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XS · 처음 읽기 · 5+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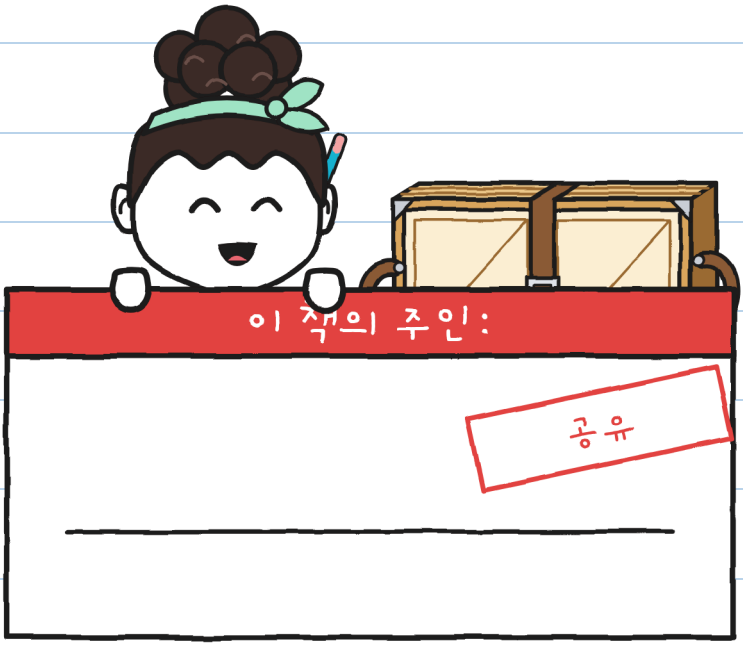
시리즈 여섯 번째 책.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셋이서 든다. 손잡이는 골랐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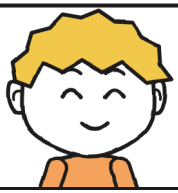

공유. 다 들어가. —J.

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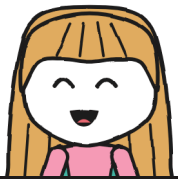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진짜로, 76쪽을 봐. —J.

# 등장인물



구니. 센티미터로 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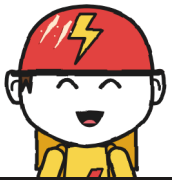
훌리타. 길을 안다.



노아. 걸음으로 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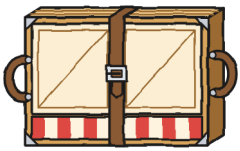
이레네. '멈춰'라고 말한다.



토쇼. 시간을 잰다.



마라. 택배를 빌려준다.



접는 극장.




R. 한 줄을 남겼다.

# 배달 공책 6
## 주인 : 구니

공유.




공책 5는 끝났다. 이번 공책은 주황색이다.

단어를 하나 썼다. 반 쪽은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네 첫 쪽에 썼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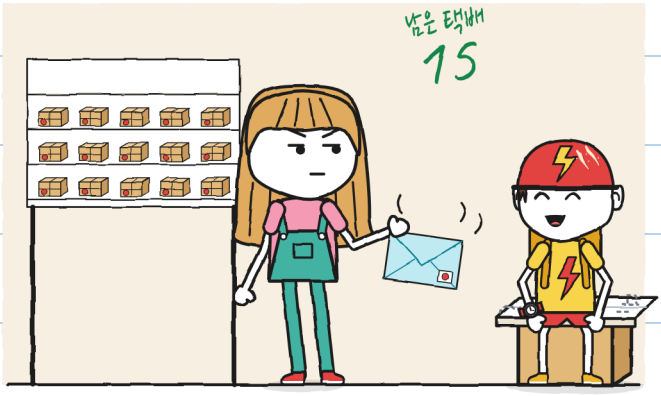
제1장

# 왜 셋이 필요할까?

월요일에 학교가 끝났다. 훌리타가 청록색 봉투를 들고 나를 기다렸다.

"안 열었어." 훌리타가 말했다.

"28분." 토뇨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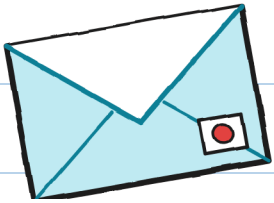



내 거 아니었어. 무거웠어. —J.

마라아줌마가 봉투를 연다.

저는 연극 공방의 이레네입니다.
한 줄이 빠졌습니다:
    미니 극장: 미수령.'
혹시 그쪽에 있나요?
3가일 토요일: 대회.
접혀서 오면,
셋이 오면 서명합니다.
노아는 둘을 더 찾습니다.

줄리타: 나야!
누군가를 데려와.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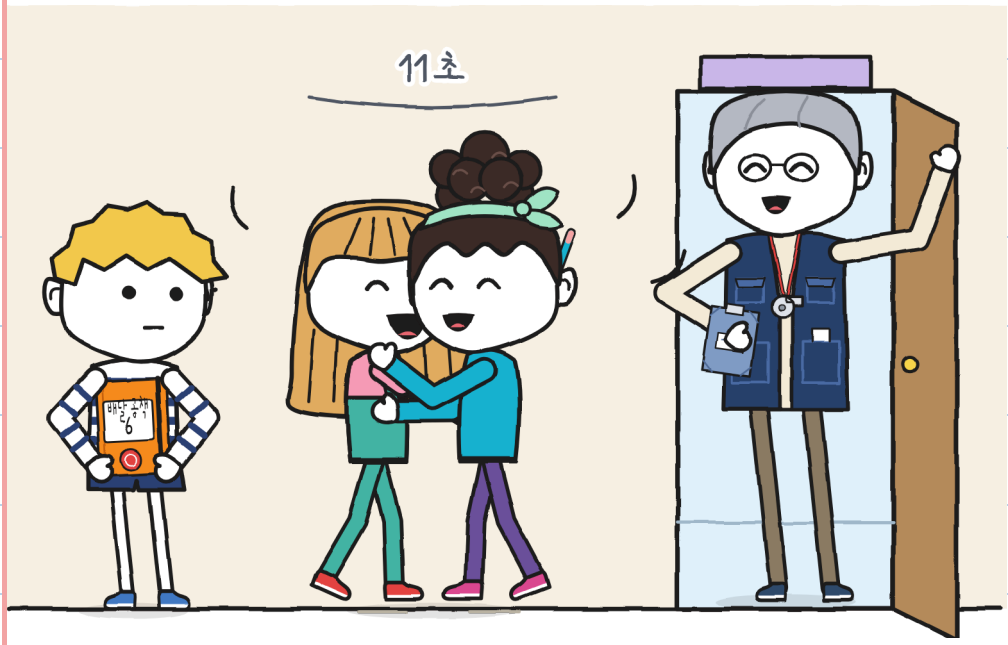
'택배 잘 아는 누군가'. 그게 나였다.

이레네 선생님과 노아가 5시에 왔다.

훌리타와 노아가 껴안았다. 11초.

"얘는 구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안녕, 구니." 노아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가 6번 택배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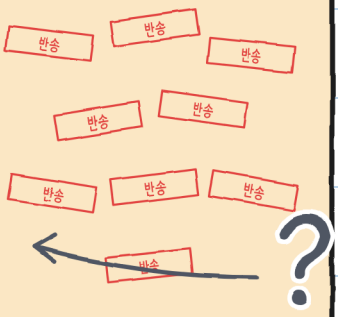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6번**

마당 공방

두 문으로

**접은 채로 배달할 것**




보내는 사람: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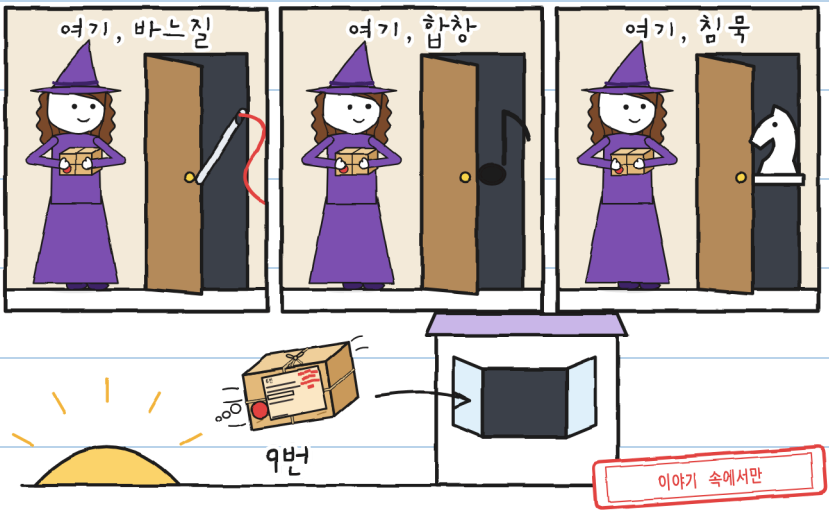
"도장이 아홉 개." 훌리타가 말했다.

"무슨 두 문이지?" 노아가 말했다.

아무도 몰랐다.

"아홉 번 갖다줬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공방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이레네 선생님이 도장 찍힌 종이를
보여 주었다. 이제 서명할 사람이 있다.

마라의 아홉 번



"마라 아줌마가 가져가면 안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아홉 번 가져갔지."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들 수 있어야 해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 빌려주기

6번, 빌려줌.

이레네와 함께 나감.

집어서 돌아옴.

여기서 잠.




선반에서 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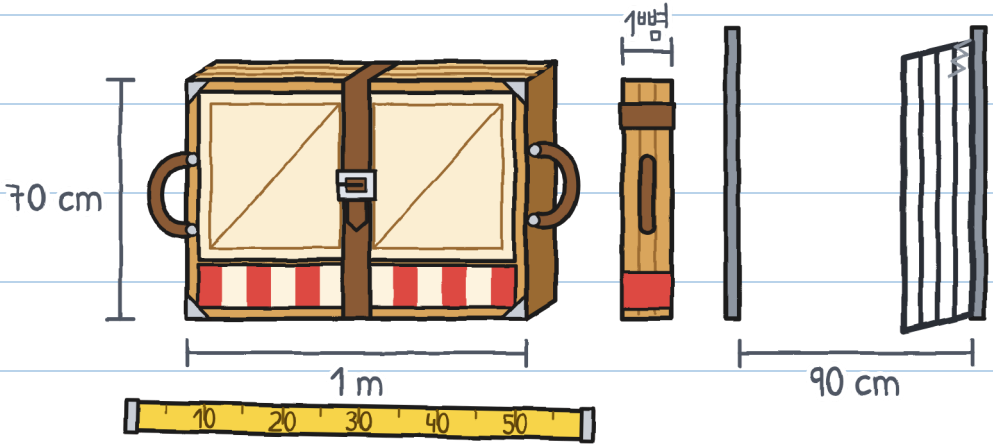
화요일에 우리는 마당에 갔다.

철문이 있다. 저절로 닫힌다.

미니 극장이 나와서 쑥

커졌다. 나는 줄자를 꺼냈다.

6번 크기




옆으로 세우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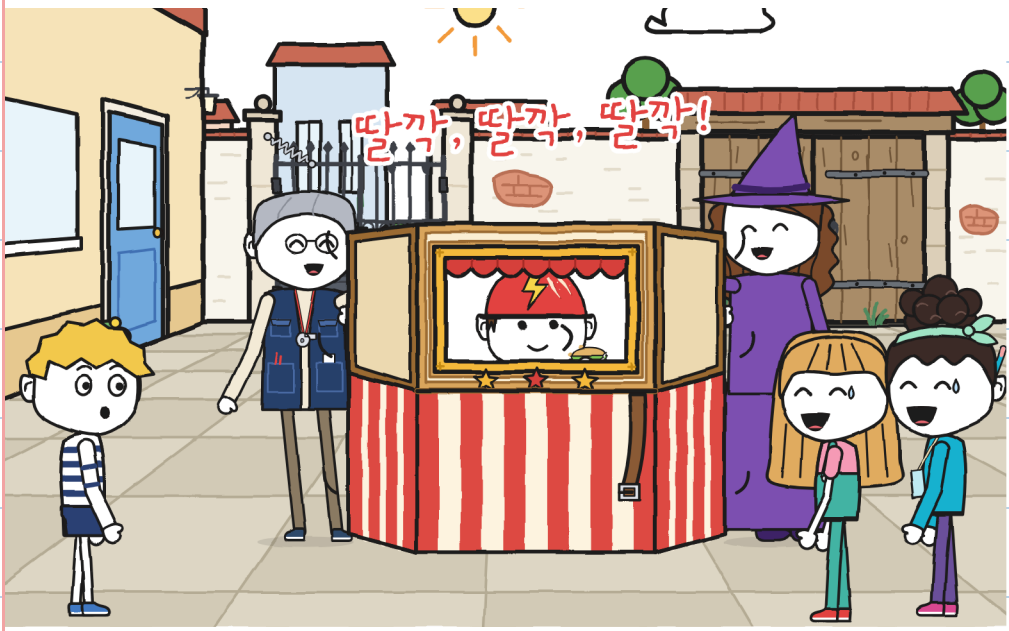
판들이 저절로 펼쳐졌다.

딸깍, 딸깍, 딸깍.

창으로 토뇨가 보였다.

"온전하네."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손은 손잡이에, 경첩에는 안 돼.



이레네 선생님과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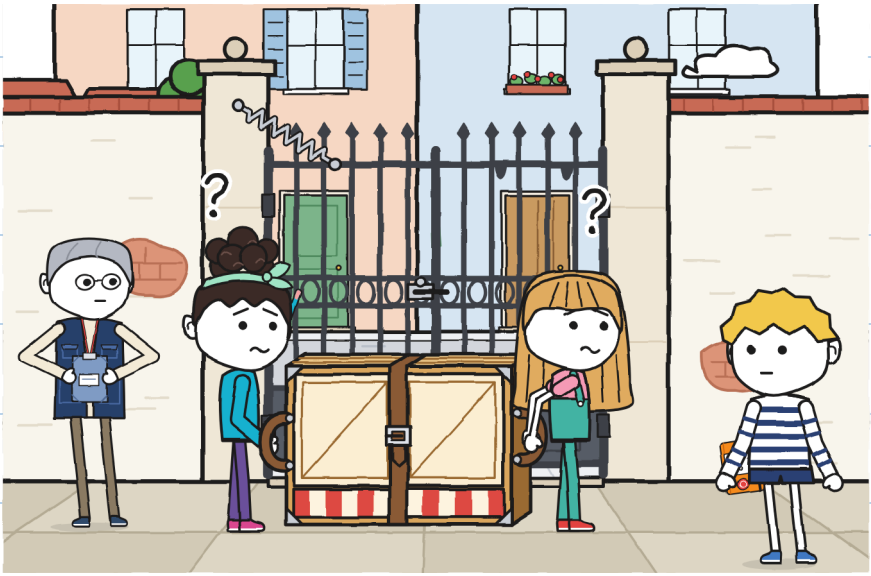
"저희가 해 볼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둘이 들어 올렸다. 철문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내 손은 비어 있었다.



나는 등으로 철문을
붙잡았다. 둘이 지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측정기를 발명했다.

셋 측정기

누가 무엇을 맡나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
| 마당, 첫 번째 시도 | 훌리타와 노아 | 훌리타와 노아 | |
| 마당, 두 번째 시도 | 훌리타와 노아 |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빈 칸이 있으면 통과 못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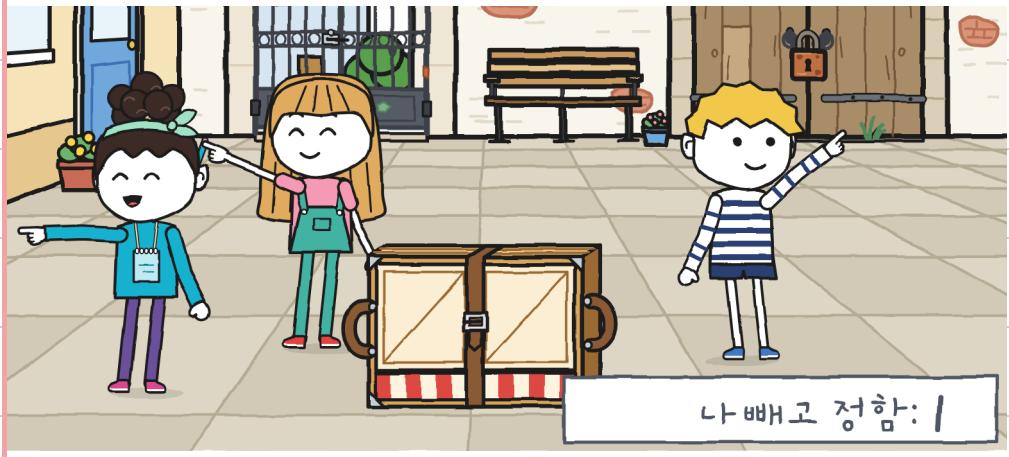
적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두 문짝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나중에." 노아가 말했다.

나 혼자 갔다. 돌아오니 둘은 벌써 정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작대기는 내 거였어. —J.

제2장

# 누가 길을 알까?

수요일은 첫 번째 경로였다.

"너랑 노아는 들어." 훌리타가

말했다. "나는 안내하고 길을 열어."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작대기.

셋 측정기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
| 마당, 첫 번째 시도 | 훌리타와 노아 | 훌리타와 노아 | |
| 마당, 두 번째 시도 | 훌리타와 노아 |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 가게 → 마당 | 구니와 노아 | 훌리타 | 훌리타 |





나빼고 정함: ||

"약도 그릴까?" 내가 말했다.

"절뚝이 물고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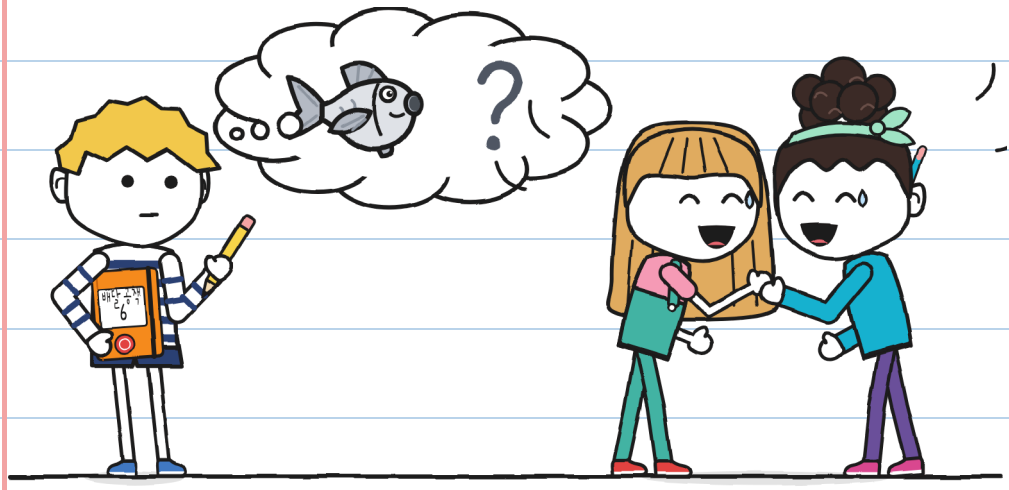
직진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무슨 물고기?"

"긴 이야기야." 노아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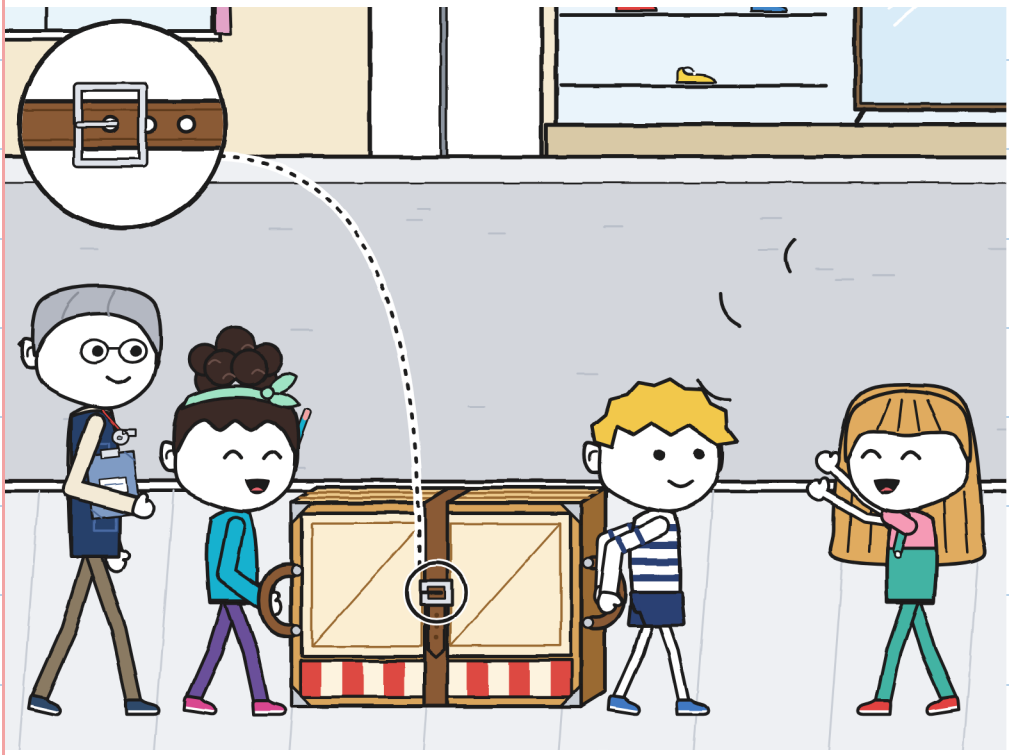
둘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작대기.



노아가 벨트를 첫 번째 구멍에 채웠다.

나는 앞에 갔다. 이레네 선생님은 맨 끝에. 턱이 나오면 '멈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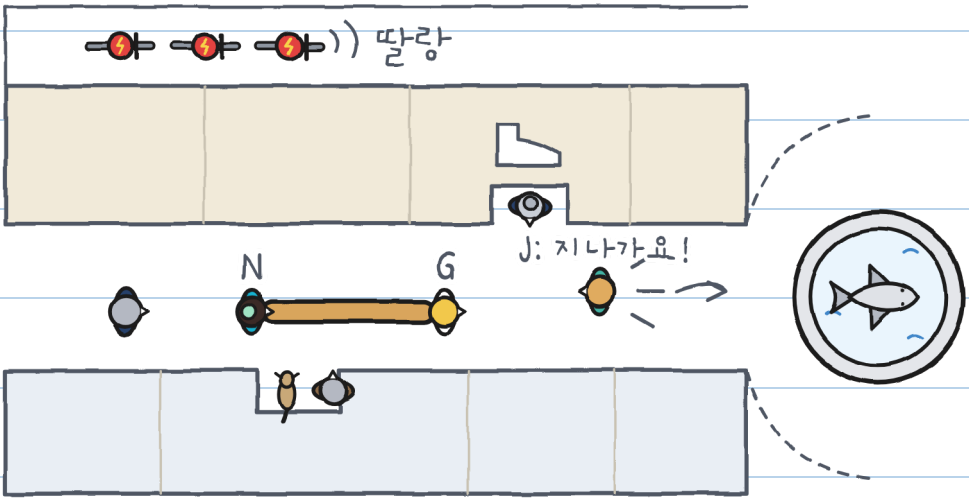
훌리타는 길을 아주 잘 열었다.

"길 좀 열어 주세요, 극장 지나갑니다!"

종이 울렸다. 딸랑.

"이걸 들고는 뛰는 거 아니야."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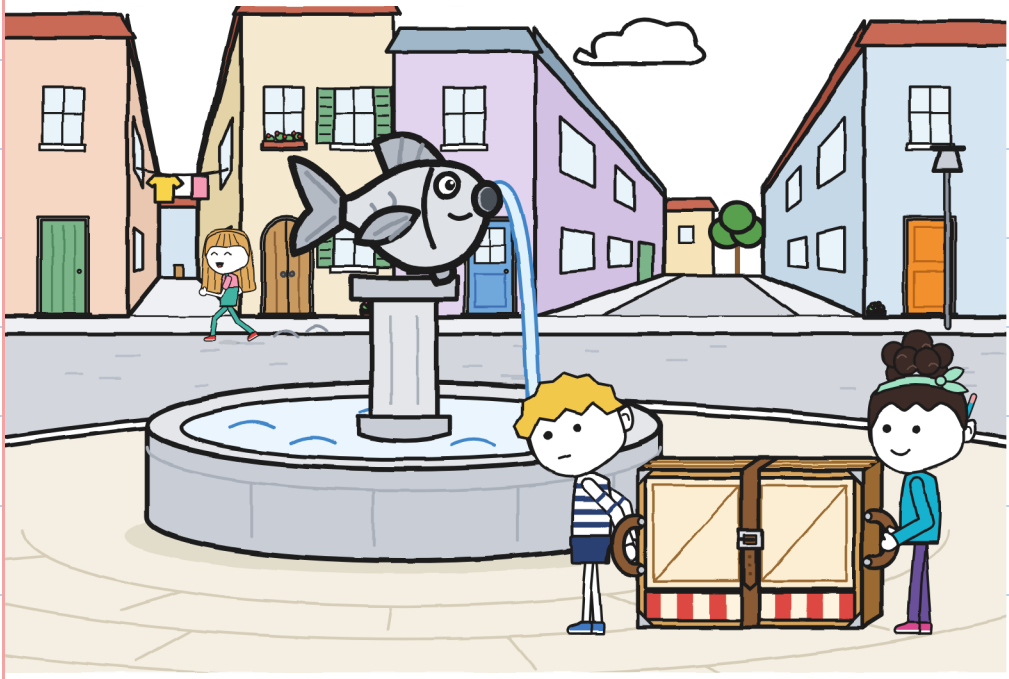
우리는 분수에 도착했다.

훌리타가 뛰어갔다.

"절뚝이 물고기까지 가서 꺾어!"

그러고는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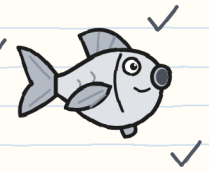
돌 물고기. 지느러미가 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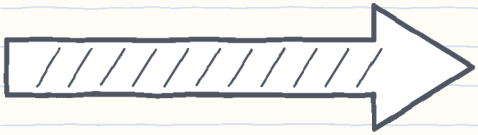
나는 서둘러 생각했다.

그건 내 특기가 아니다.

물고기: 지느러미 다 있음.
절뚝이 아님.
다른 물고기가 있겠지.



껍기: 어느 쪽?
왼쪽, 좁은 길.
오른쪽, 넓은 길.
넓은 쪽이 더 좋다.



"껍을까?" 내가 물었다.

"절뚝이 물고기에서!" 노아가 말했다.

다른 물고기는 없었다.

오른쪽으로 껍었다.

아무도 '회전'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벨트를 잡지 않았다.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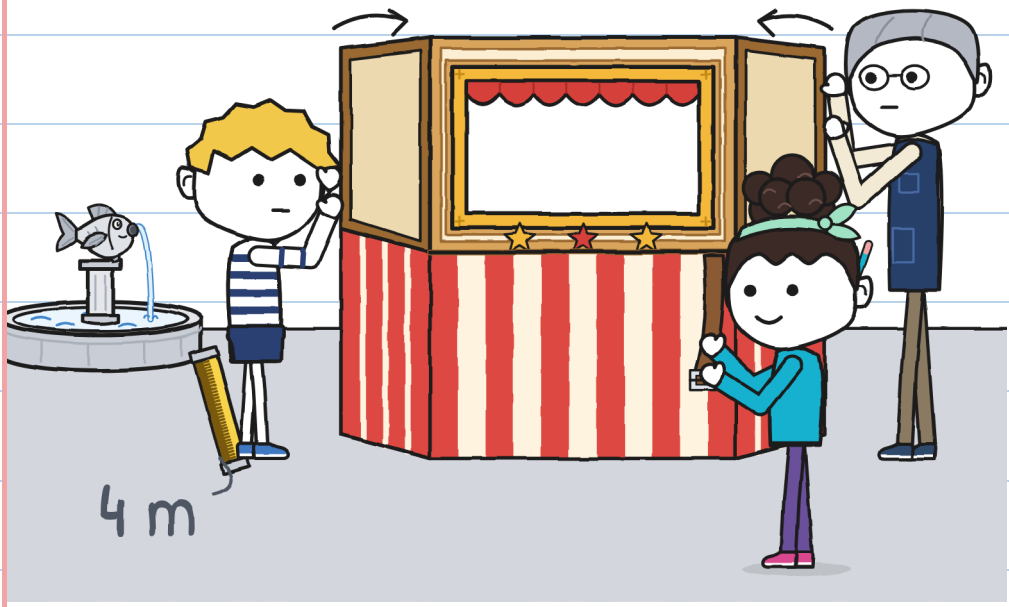
구멍의 버클은 오래 못 버틴다.

딸깍. 딸깍. 딸깍.

판들이 펼쳐졌다. 안에는 노아가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은 노아의 손을
보았다. 그다음 내 손을.
"누가 안내했니?" 선생님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안내하던
훌리타는 두 골목 너머에 있었다.
재 보았다. 분수까지 4미터.



"절뚝이 물고기에서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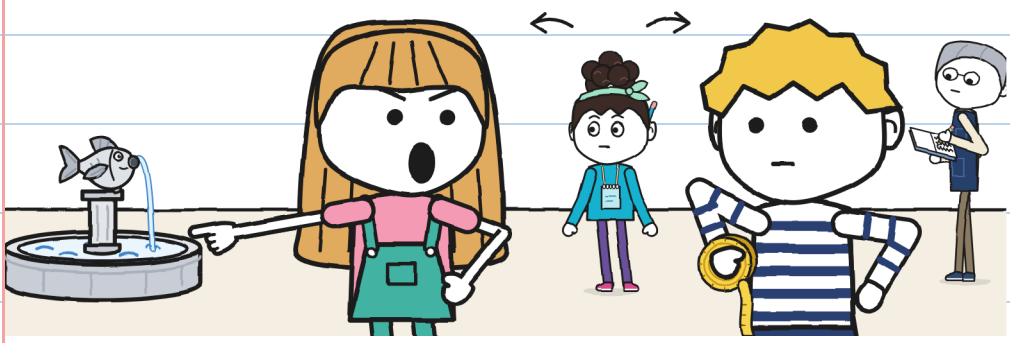
"늘 하던 대로."

"'늘'은 내가 없던 때 얘기야."

훌리타가 이레네 선생님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재봤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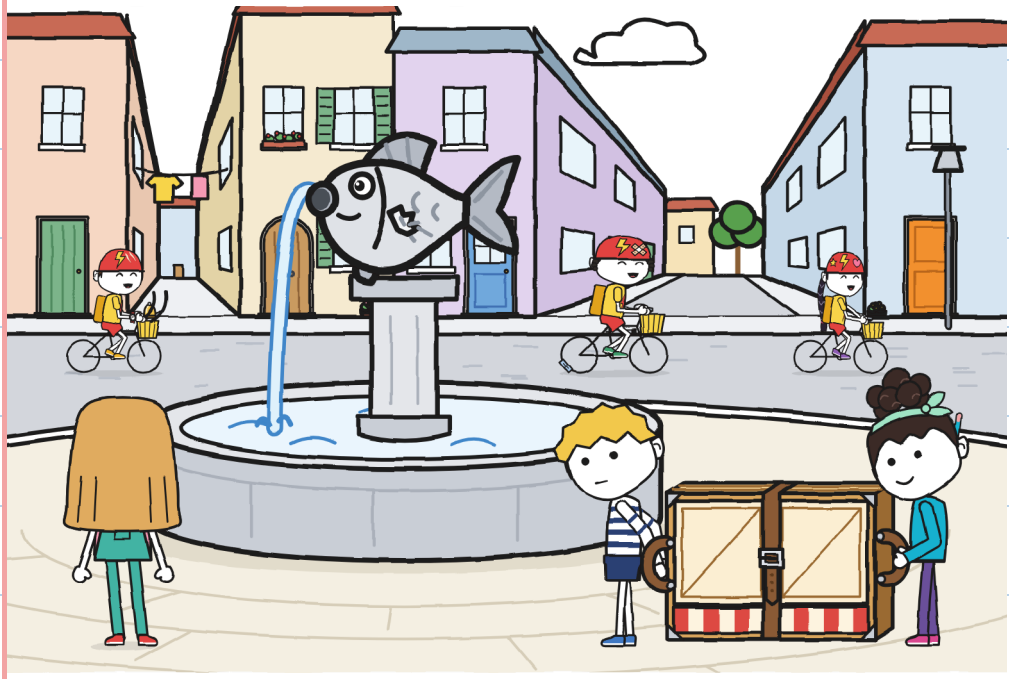
네 번째 작대기.



모두 앞에서 말했어. —J.

둘이 물고기의 반대쪽을 보여
주었다. 지느러미가 하나 없다.

우리는 회전을 다시 했다. 맞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번개배송이 자전거로 지나갔다. 딸랑.



우리는 거의 밤에 도착했다.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상자에 넣었다.
나는 오늘 일을 측정기에 적었다.
뭔가 빠져 있었다. 뭔지는 몰랐다.

셋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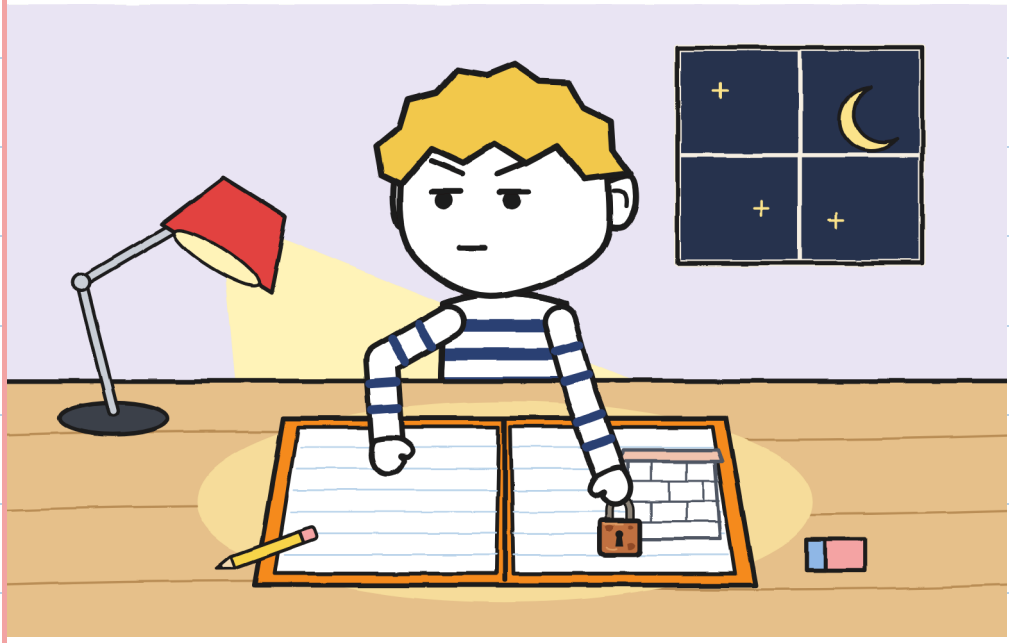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
|---|---|---|---|---|
| 가게 → 마당 | 구니와 노아 | 홀리타 | 홀리타 | |
| 가게 → 분수 | 구니와 노아 | 홀리타 | 홀리타 | 펼쳐짐 : 3번 |

?

내 이름이 두 번 나와. 나는 없었어. —J.

집에서, 담장 뒤에서 발견한 것을 그렸다.

생각했다. '내일 또 들려. 그때 꺼내자.'



마음에 안 들었어. -J.

제3장

# 구니의 약도는 쓸모 있을까?

그날 밤 약도를 통째로 만들었다.

약도가 아주 잘 나왔다. 네 겹으로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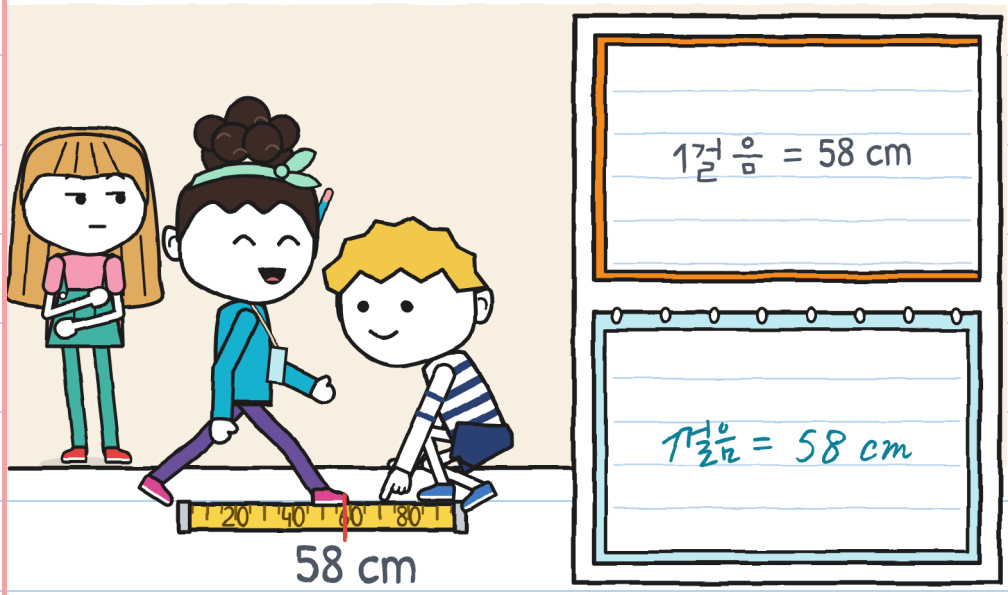


목요일에 노아가 걸음을 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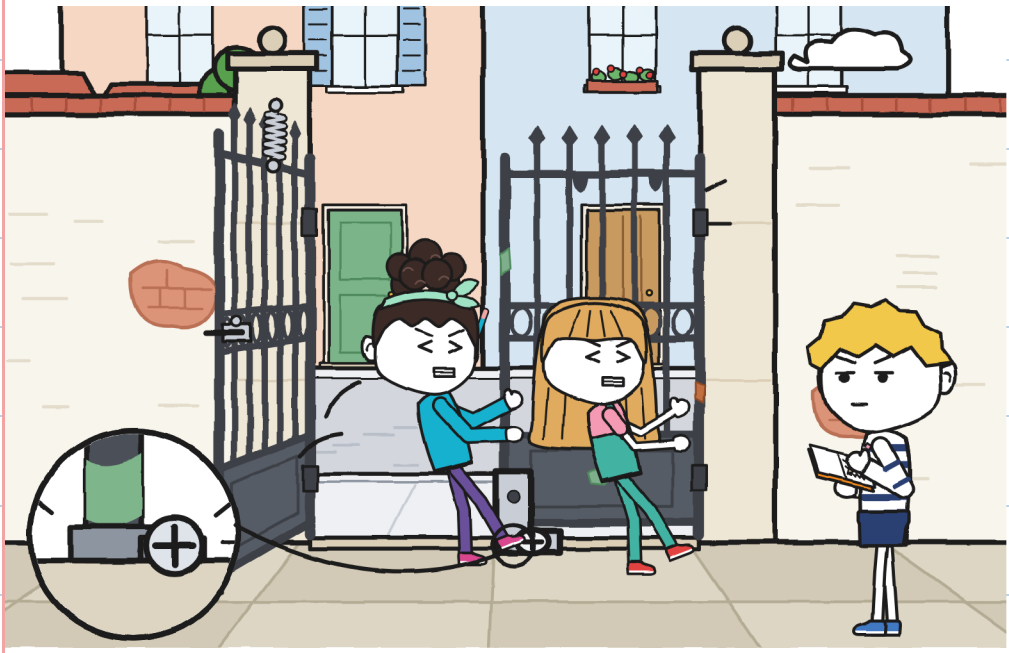
"난 걸음으로 재." 노아가 말했다.

노아의 한 걸음을 재 보았다.

58센티미터. 노아는 센다.



우리는 마당에 갔다. 훌리타와
노아는 문짝 두 개를 다 열고 싶어
했다. 두 번째 문짝은 열리지 않았다.
"라벨이 틀렸어." 훌리타가 말했다.
"분명해." 노아가 말했다.
나는 연필을 꺼냈다.



긋지 않았다.

작대기 줄을 보았다. 내 것이
하나 빠져 있었다. 화요일에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나 빼고 정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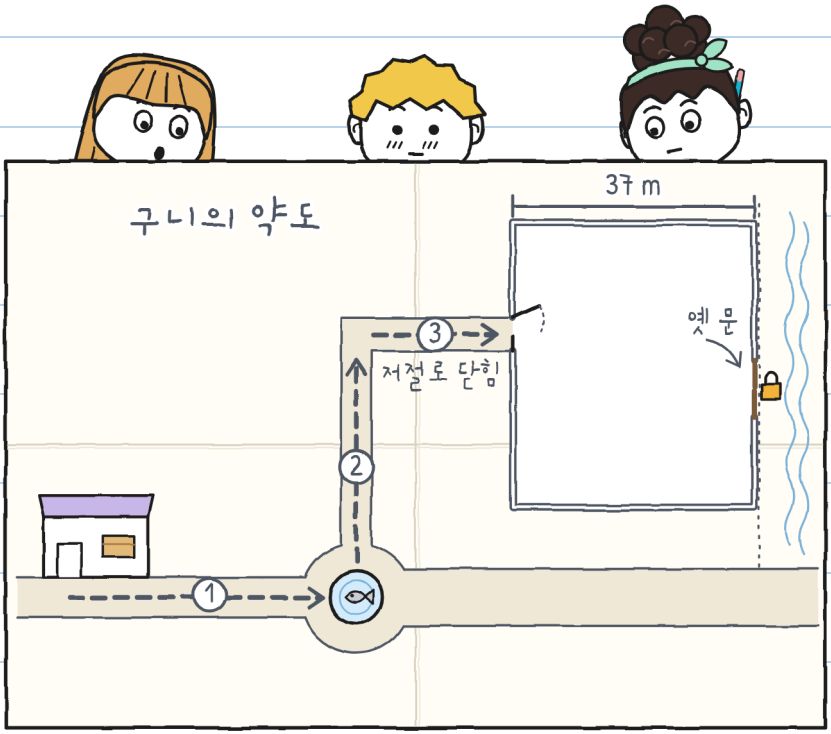
둘 빼고 정함: |



"라벨은 안 틀렸어." 내가 말했다. "마당에는 다른 문이 있어. 화요일에 찾았어."

"화요일?" 훌리타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옳았다고 하려고 숨겨 뒀어."



"알았어." 노아가 말했다.

훌리타는 '알았어'라고 하지

않았다. 발을 까딱거렸다.

"어제는 정말 필요했는데."

훌리타가 말했다.

"알아."



아직 진짜가 아니었어. —J.

우리는 문을 보러 갔다. 노아는 예순네 걸음을 세었다. 나는 3가미터를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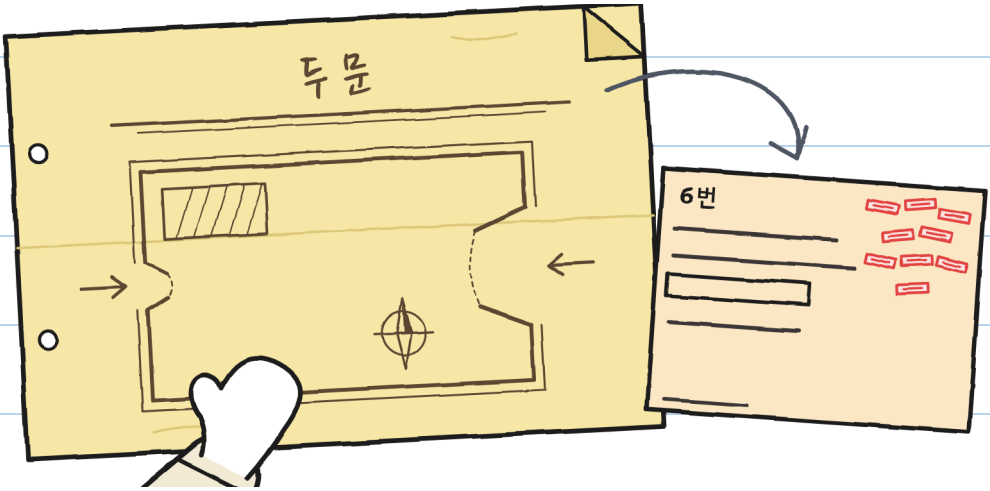
나무 문이다. 자물쇠는 자물쇠라기보다 녹덩어리다.



이레네 선생님이 노란 종이를 찾아냈다.

"옛날에는 두 군데로 들어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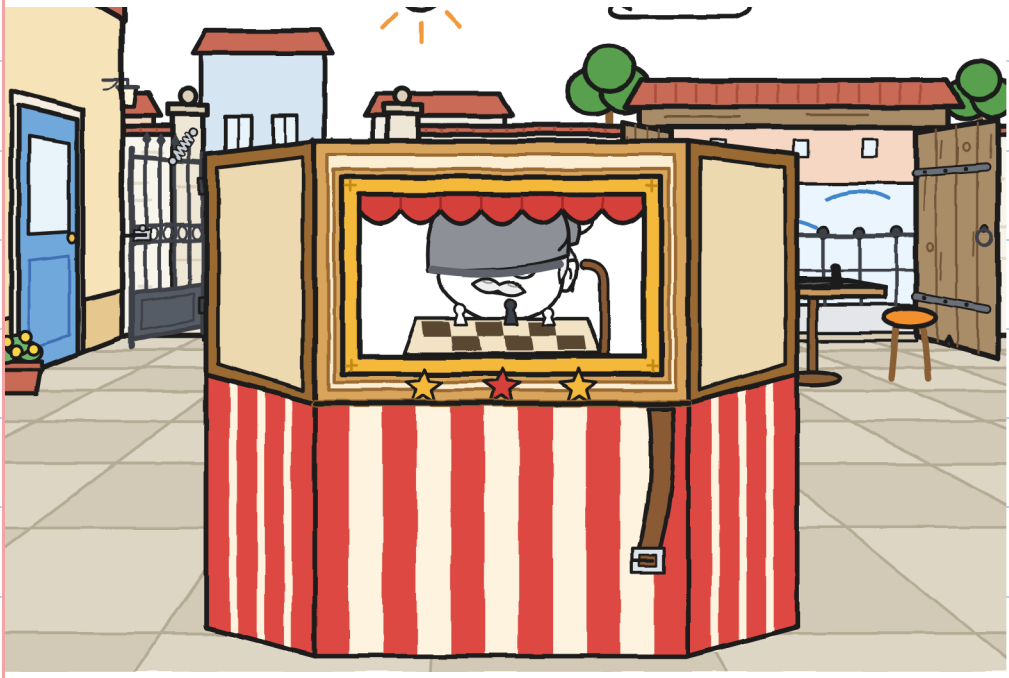
"오래된 주소였어." 내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아홉 번 봤어. —J.

열쇠는 봉투 안에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이 자물쇠를 열었다.

창으로 안토니오 어르신이 보였다. 코를 조금 골았다.



"토요일에는 두 문을 다 열어. 자전거는
옛 문으로."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넌 어떻게 생각해?"
훌리타가 나에게 물었다.
이번 주 들어 처음이었다.



나는 철문이라고, 하지만 연습하고
가자고 했다. 노아도 같았다.
훌리타는 '알았어'라고 했다.
측정기에 칸을 하나 더했다.

칸넷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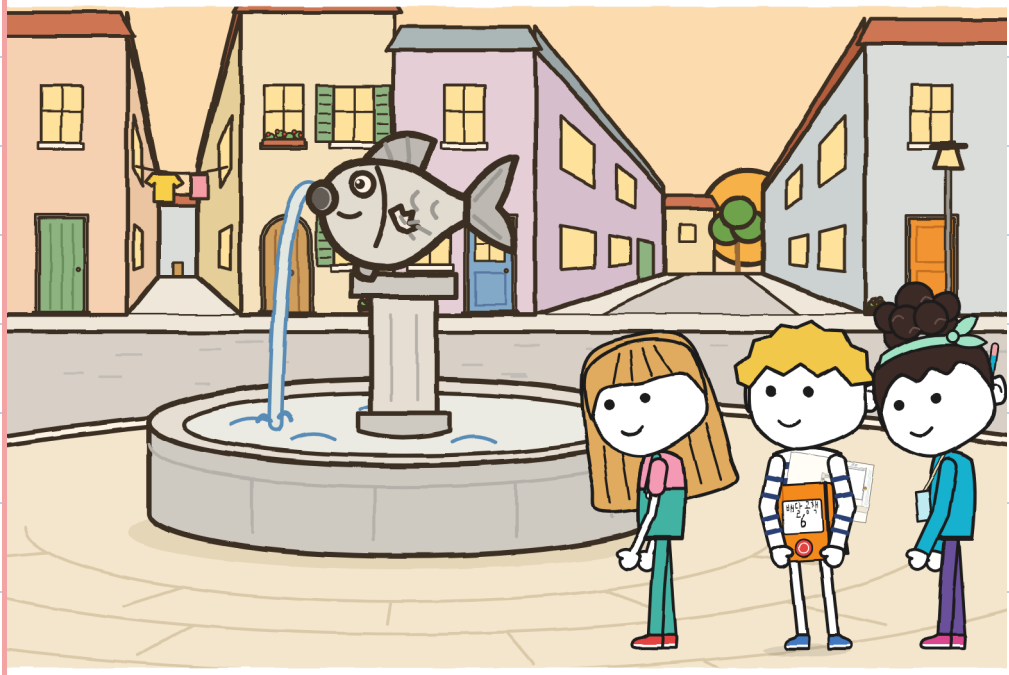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알림 |
|---|---|---|---|---|
| 마당, 두 번째 시도 | 훌리타와 노아 |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구니, 아님 |
| 가게 → 분수 | 구니와 노아 | 훌리타 | 훌리타 | 아무도 |

알림 : 아는 것

넷째 칸이 힘들어. —J.

우리는 분수 쪽으로 돌아왔다.
나는 절뚝이 물고기 앞에 멈췄다.

"그 이야기 해 줄래?" 내가 물었다.
"토요일에." 노아가 말했다.
싫다는 말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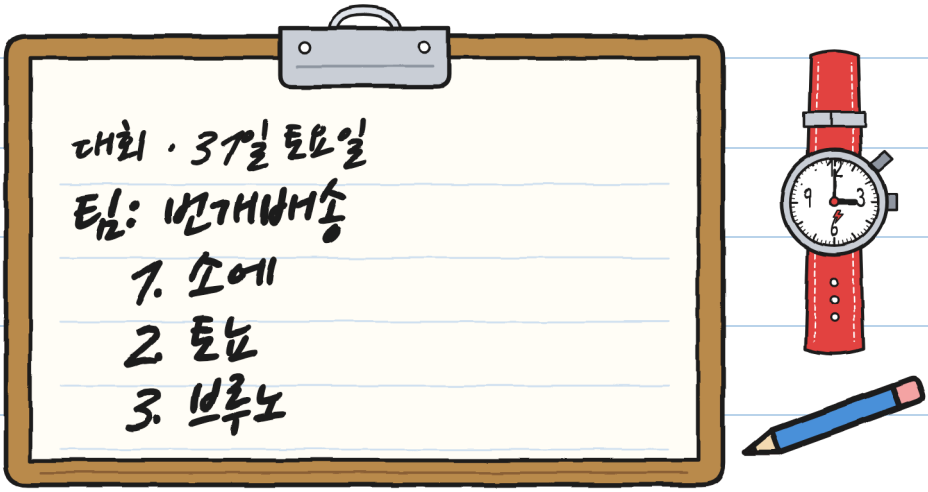


제4장

# 아무나 안내할 수 있을까?

토뇨가 시계와 번개배송

신청서를 가져왔다.




"소에가 썼어." 토뇨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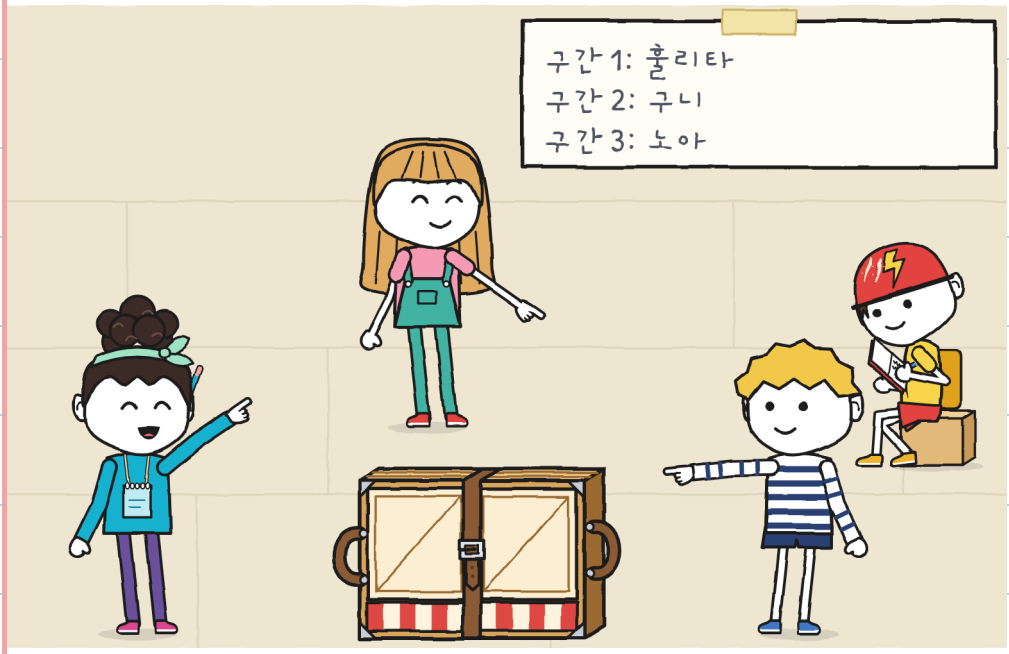
브루노가 말했다. '브 자로.'

"오늘은 시간을 잰다." 토뇨가 말했다.

노아가 말했다. 교대. 내가 말했다. 짐 없는 사람이 안내. 훌리타가 말했다. 당장 시작!

"첫 구간은 누가 안내해?"

우리 셋은 가리켰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내가 노아만 알아듣는 안내를 했어." 훌리타가 말했다. "그러고서 '구니가 길을 잃었어'라고 했고."

"알았어."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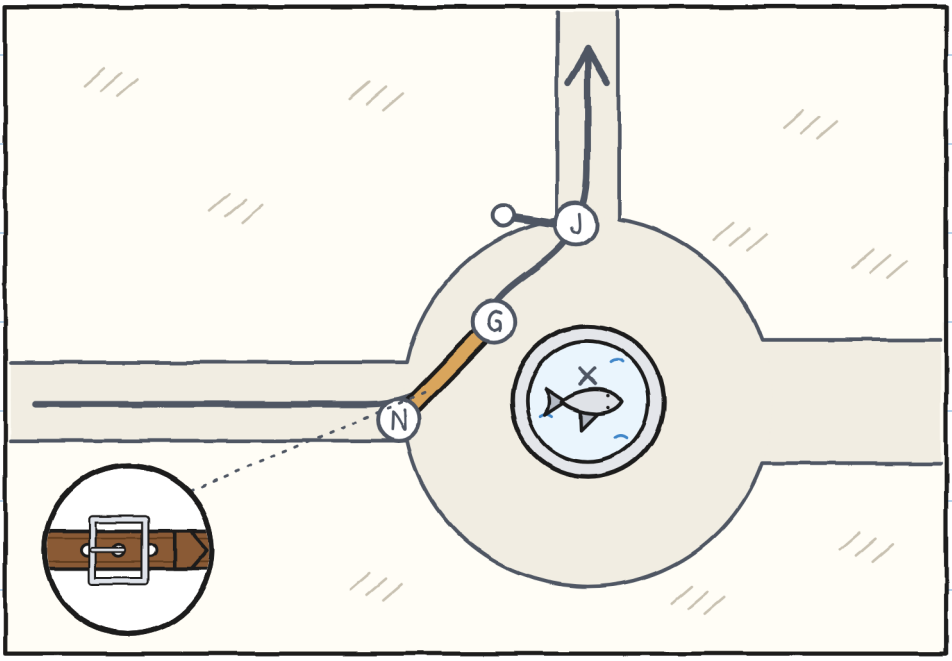
"물고기는 어느 쪽 지느러미가 없어?"

"왼쪽."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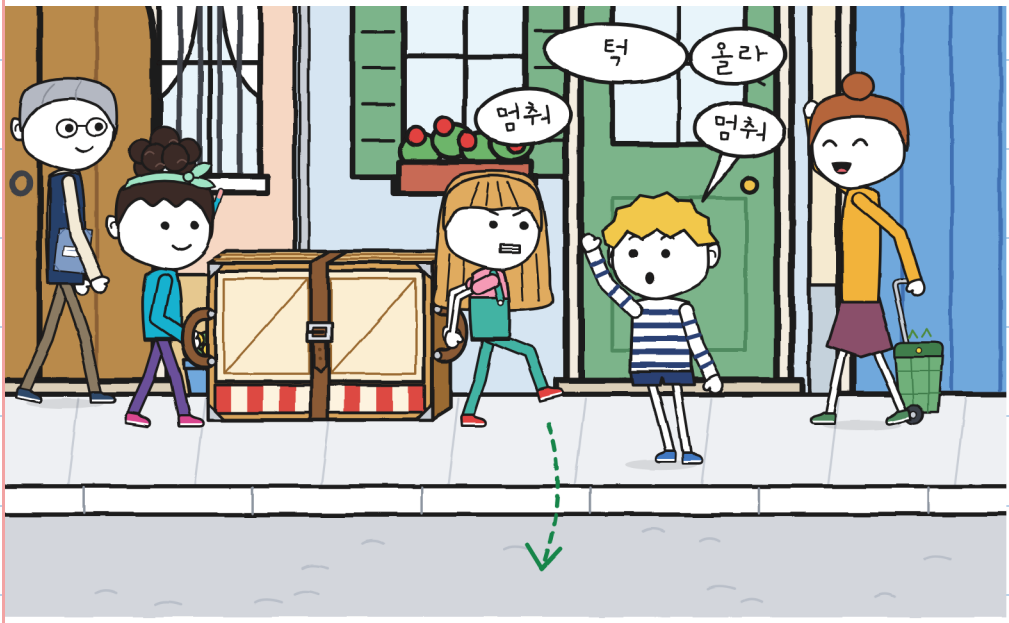



내 발을 봐. 가만히 있어. —J.

첫 번째 구간. 노아가 벨트를
두 번째 구멍에 채웠다.
"다섯 걸음... 좌회전!"
"벨트!" 노아가 말했다.
우리는 절뚝이 물고기 둘레를
돌았다. 딸깍 소리는 없었다.



두 번째 구간. 훌리타와 노아가
들었다. 안내는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안내한다.
"세 걸음, 멈춰, 턱, 올라."
훌리타는 말없이 앞에서
갔다. 발은 지름길을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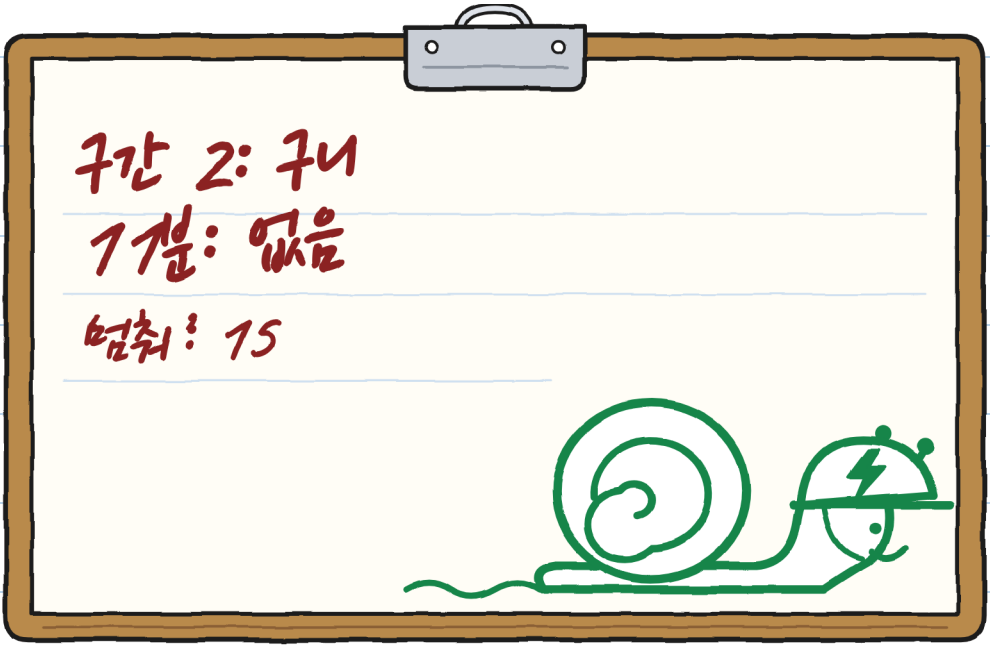


"11분." 토쇼가 말했다.

내가 처음으로 이겼다.

다시 할 게 없었다.

"'멈춰'를 열네 번 했어." 훌리타가 말했다.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 —J.

세 번째 구간. 훌리타와 내가
들었다. 안내는 노아가 했다.

노아는 운하 골목에서 멈췄다.
"지도가 우리를 옛 문으로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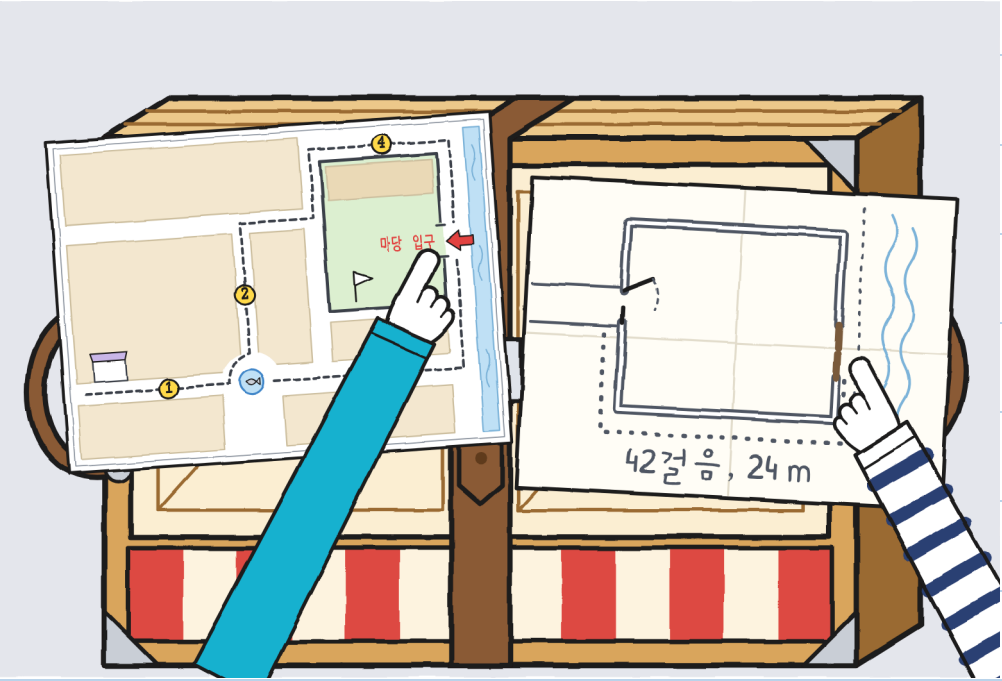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따진다.

"오래된 지도야." 내가 말했다.

철문까지: 42걸음, 24미터.



"이레네 선생님한테
말할까?" 훌리타가 물었다.
"다른 팀들한테도." 노아가 말했다.

이레네 선생님이 지도를
빨간 매직으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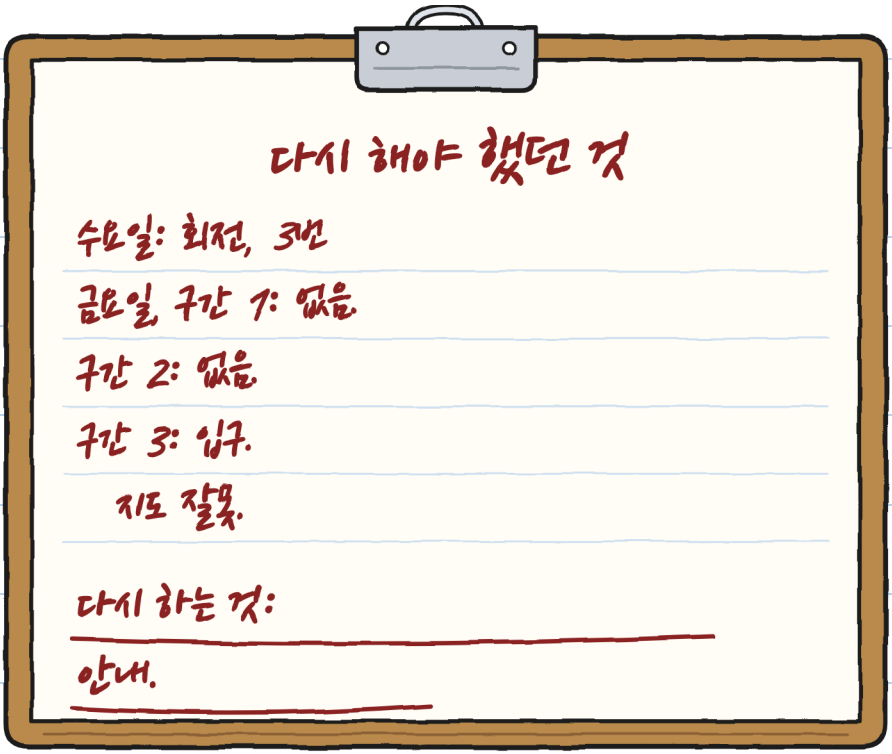
우리는 세 번째 구간을
철문까지 다시 했다. 노아는
안내하고, 길을 열고, 알렸다.
"멈춰! 문짝 잡았어! 지나가!"
통과했다.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알림  |
|---|---|---|---|---|
| 모퉁이 → 마당 | 구니와 훌리타 | 노아 | 노아 | 노아: "시도가 틀렸어" |

노아가 넷째 칸을 채웠다.

노아가 철문을 잡았어. —J.

토뇨가 자기 종이를 보여 주었다.




"그건 의견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데이터야." 토뇨가 말했다.

토뇨는 헬멧을 쓰고 갔다. 딸랑.

밤에 마라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넣어 두었다. 노아는 버클을 보았다.
"내일은 세 번째 구멍에." 노아가 말했다.
오늘은 작대기를 안 그었다. 의견
차이가 네 번. 하나는 내가 이겼다.

나 빼고 정함: ////
둘 빼고 정함: |

금요일.
의견 차이: 4.
말함: 4.
이김: 1.




바닥에 내려놓기는 선물로 줄게. —J.

제5장

#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할까?

토요일에 나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다.

11시에 마당은 두 문이 다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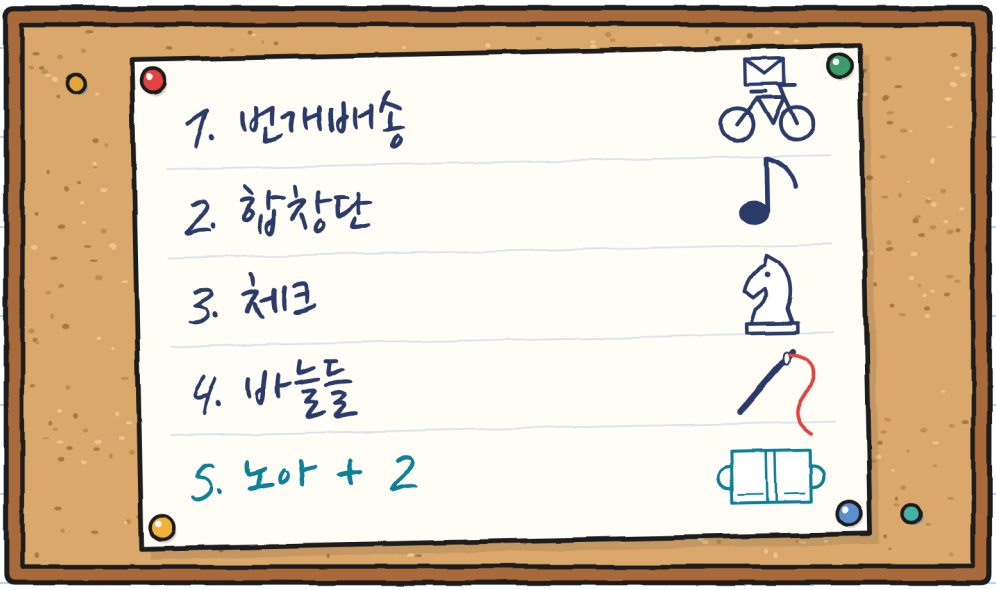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짐을 들고는 뛰지 않아요."



팀이 다섯이었다. 번개배송은 봉투를 들었다. 합창단은 악보대를 들었다.

노아가 우리 팀을 적어 두었다.




"우리는 '노아 + 2'야." 내가 말했다.

"나는 2야."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가 벨트를 서둘러 채웠다. 딸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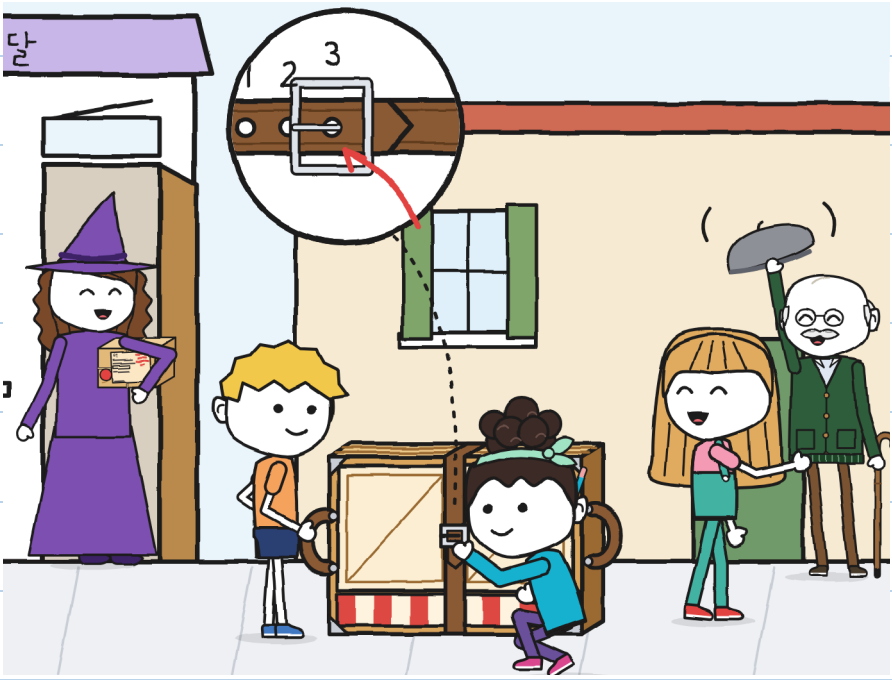
"바닥에 내려놔!" 내가 말했다.

노아가 벨트를 다시,

세 번째 구멍에 채웠다.

안토니오 어르신이

베레모를 내렸다.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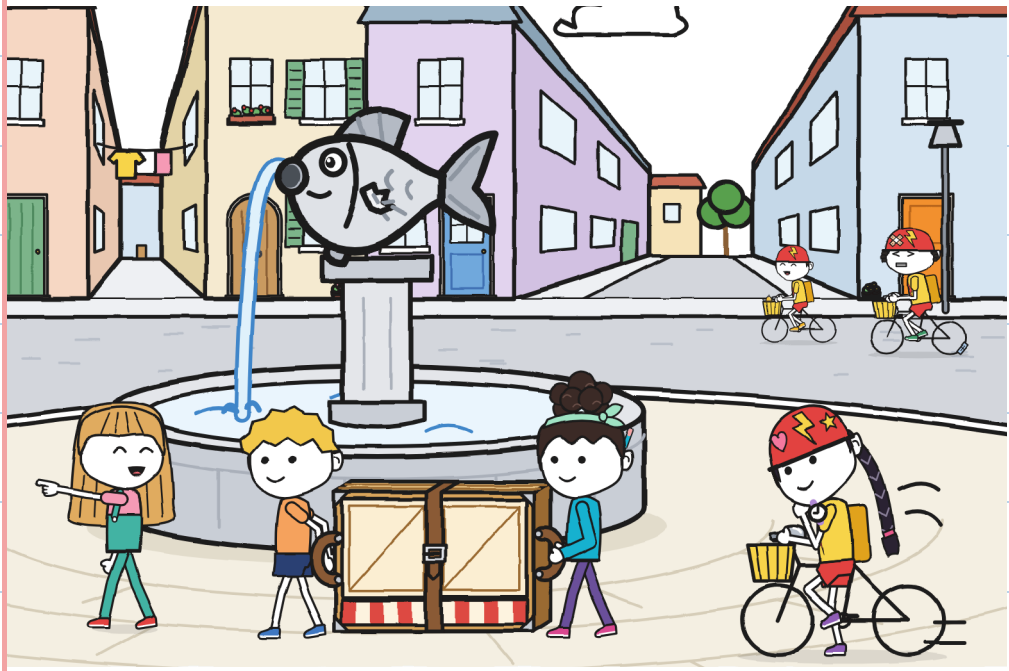
첫 번째 구간. 훌리타가 안내했다.

"좌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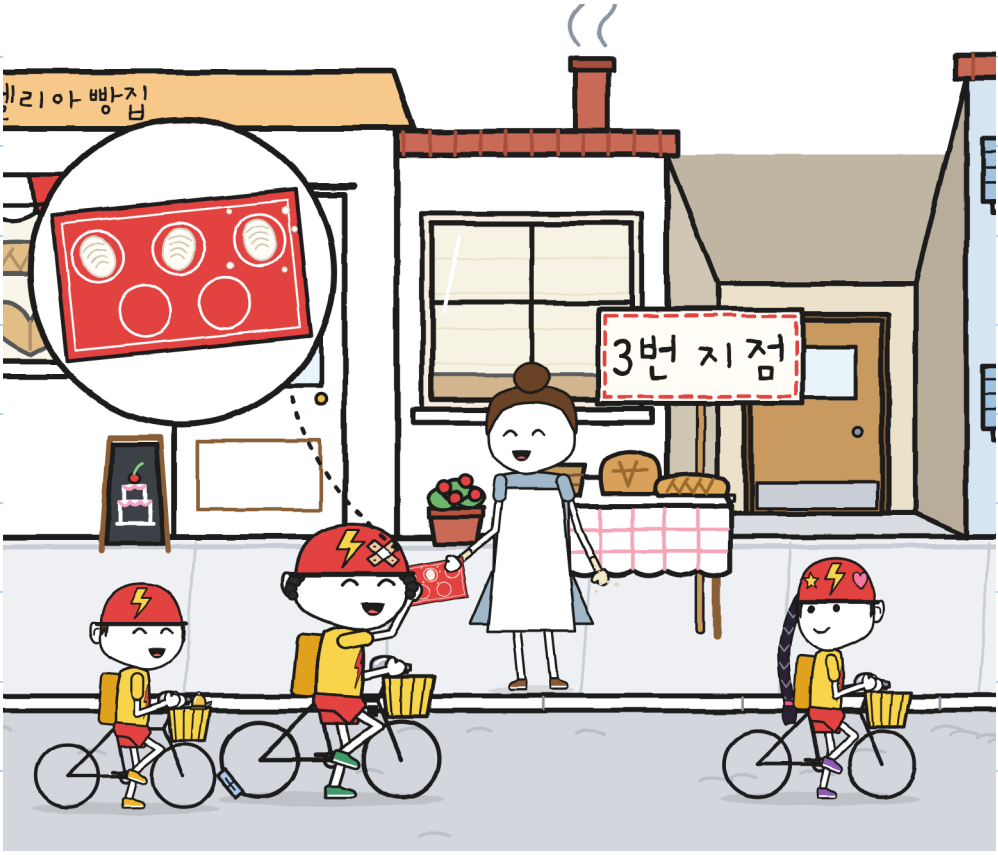
소에가 자전거로 왔다. 멈췄다.

"먼저 가."

우리는 20초 동안 앞에 있었다.



지점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었다. 엘리아
아줌마는 밀가루 묻은 엄지로 찍었다.
번개배송이 우리를 세 번
지나갔다. 토뇨가 종을 울렸다.



합창단이 우리를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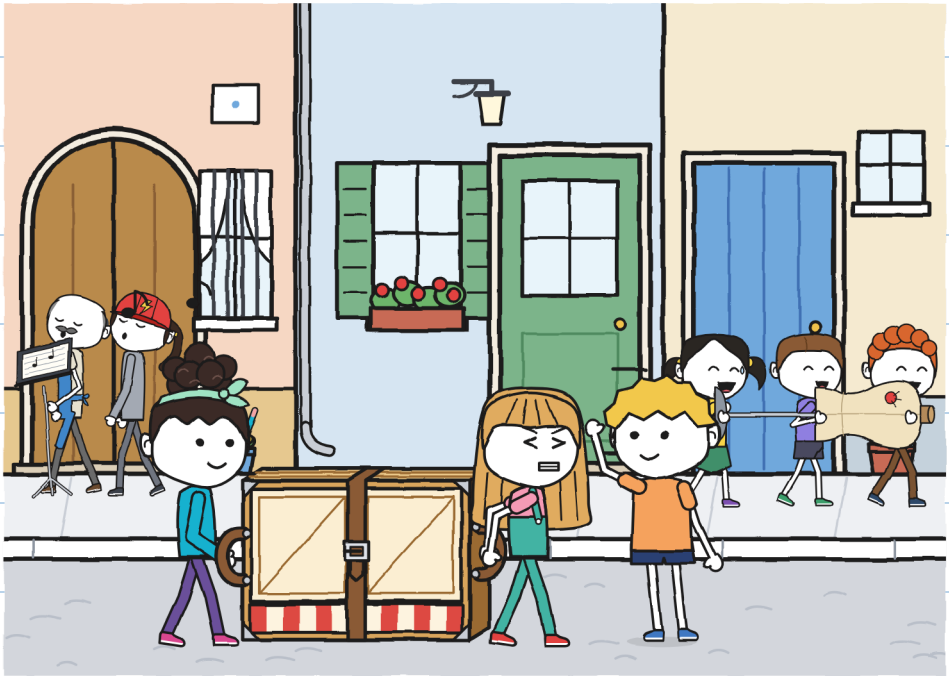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해?"

"라벨에는 '접은 채로'라고

쓰여 있어." 노아가 말했다.

훌리타는 뛰지 않았다. 아니, 발이

저절로 나갔다. 도로 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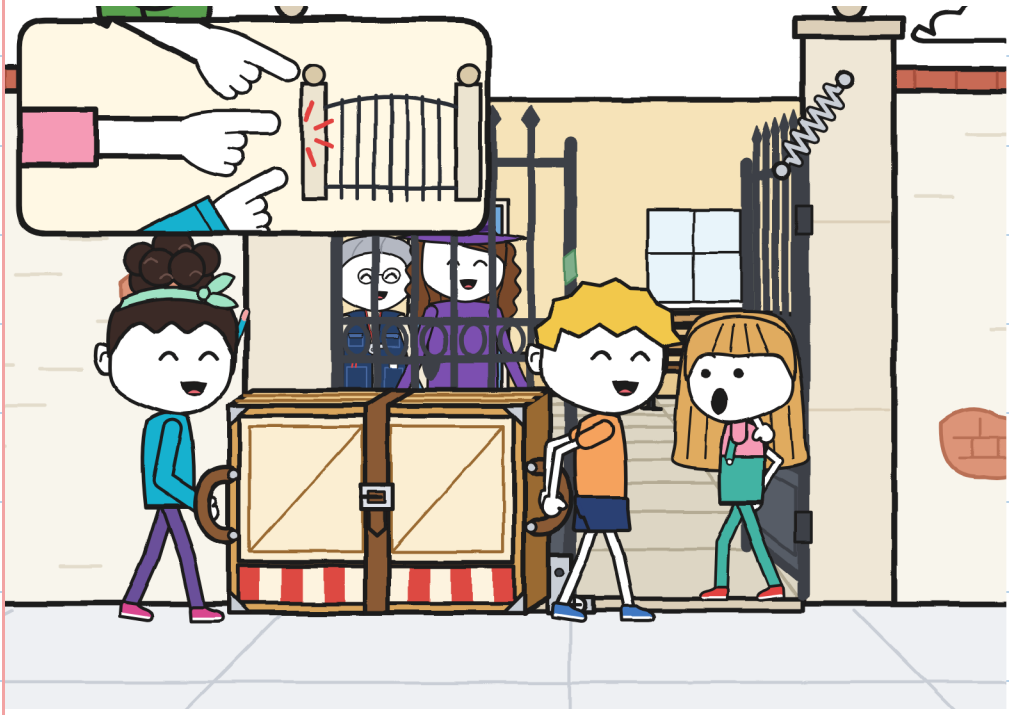
세 번째 구간. 노아가 철문까지 안내했다.

"누가 열어?" 훌리타가 물었다.

훌리타가 철문을 붙잡았다.

"멈춰! 지나가!"

우리는 통과했다. 접은 채로. 온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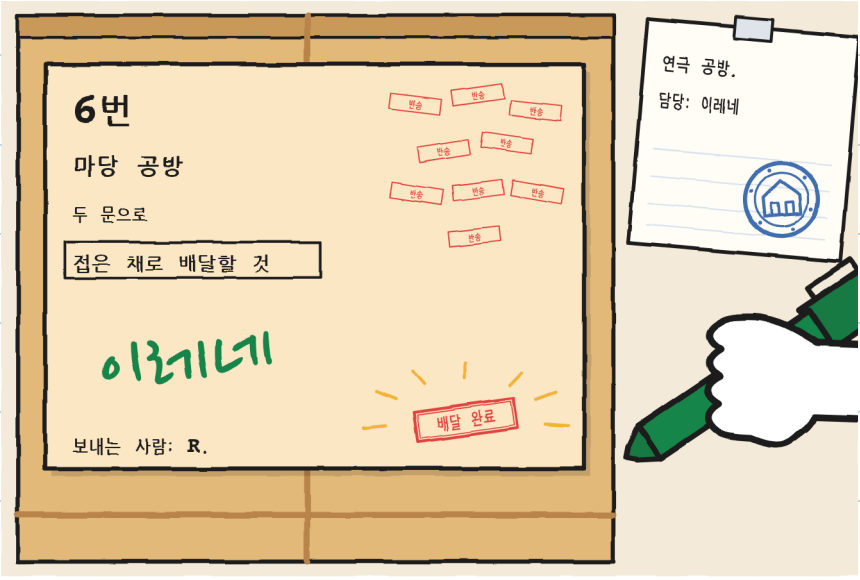
"41분."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번개배송은 14분이 걸렸다.

이레네 선생님은 접힌 미니 극장을 보았다.

"쓸모 있네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고는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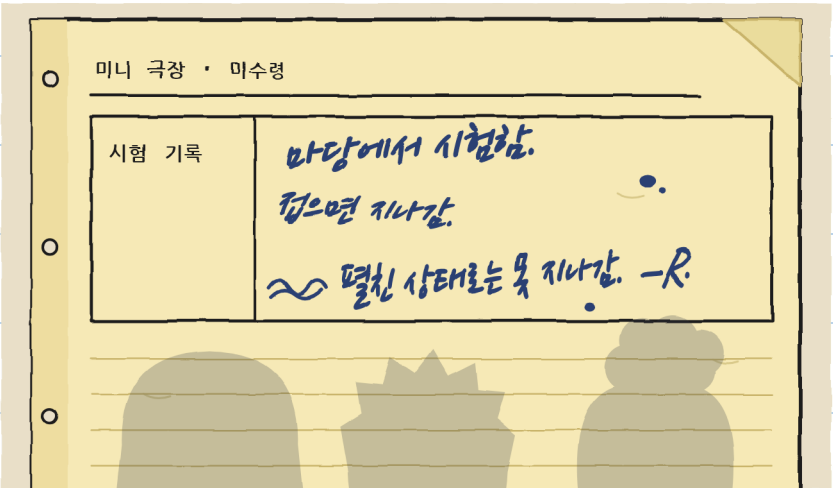



'배달완료'가 나타났다.

아무도 쓰지 않았다.

이레네 선생님은 물품 목록을 열었다.

미니 극장에는 오래된 한 줄이 있었다.




"나보다 먼저 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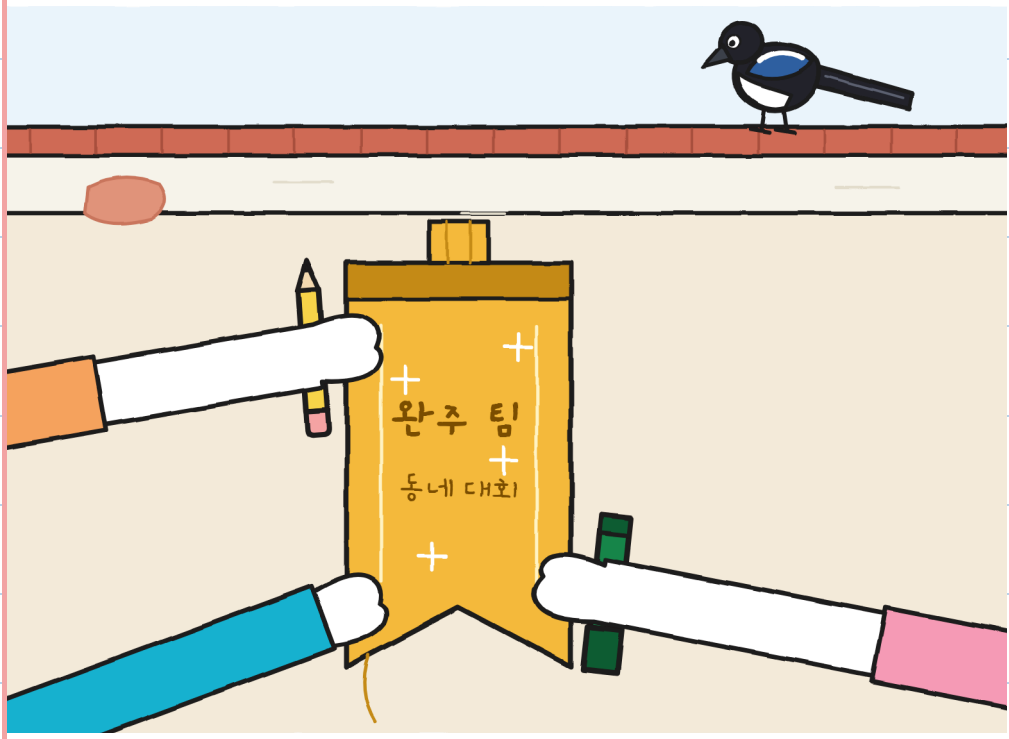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R.은 그 마당에서 미니

극장을 시험해 보았다.

R.은 문을 재. 적어 둘게. -J.

번개배송이 이겼다. 한 구간도 다시
하지 않았다. 상품: 엘리아 아줌마의 빵.




"완주 팀은 꼴찌야." 훌리타가 말했다.
"끝까지 간 팀이야." 노아가 말했다.

"처음 써 봐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공연을 지어낼 시간이 2분.

"누가 말 조금만 하고 싶어?"

나는 손을 들었다.

부스러기가 판 위에 앉았다.



우리는 공연을 했다. 노아는
모든 문이었다. 나는 택배였다.
나는 '반송'을 아홉 번 말했다.
우리 셋이 다 들어갔다. 꽉 끼어서.




좁혀 앉는 거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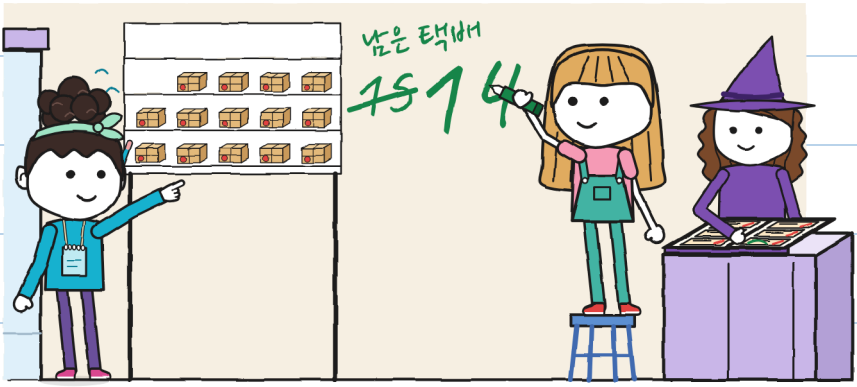
제6장

# 대회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우리는 가게로 돌아왔다.

"제가 해도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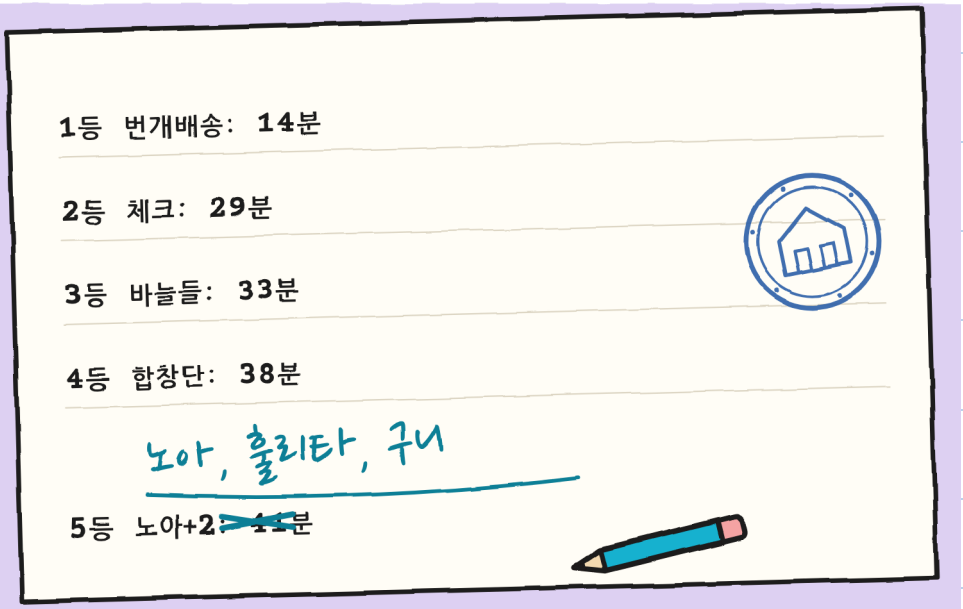
15를 지우고 14라고 썼다.




노아가 작은 소리로 세었어. 열네 개. —J.

토뇨가 순위표를 가져왔다.

나는 그것을 적었다.




나는 두 번 보았다. '브루노'

는 그대로 있었다.

노아가 청록색 연필로 우리 팀을 고쳤다.

R.의 카드에 단서를 하나 더했다.

"시험해 봤구나." 토쇼가 말했다.

"내 종은 안 해 봤고."

## R.에 대해 아는 것

?

R.



단서 1-11

12. 미니 극장을 시험했다.
보내기 전에 시험해 봤다.
물품 목록에 있다.

미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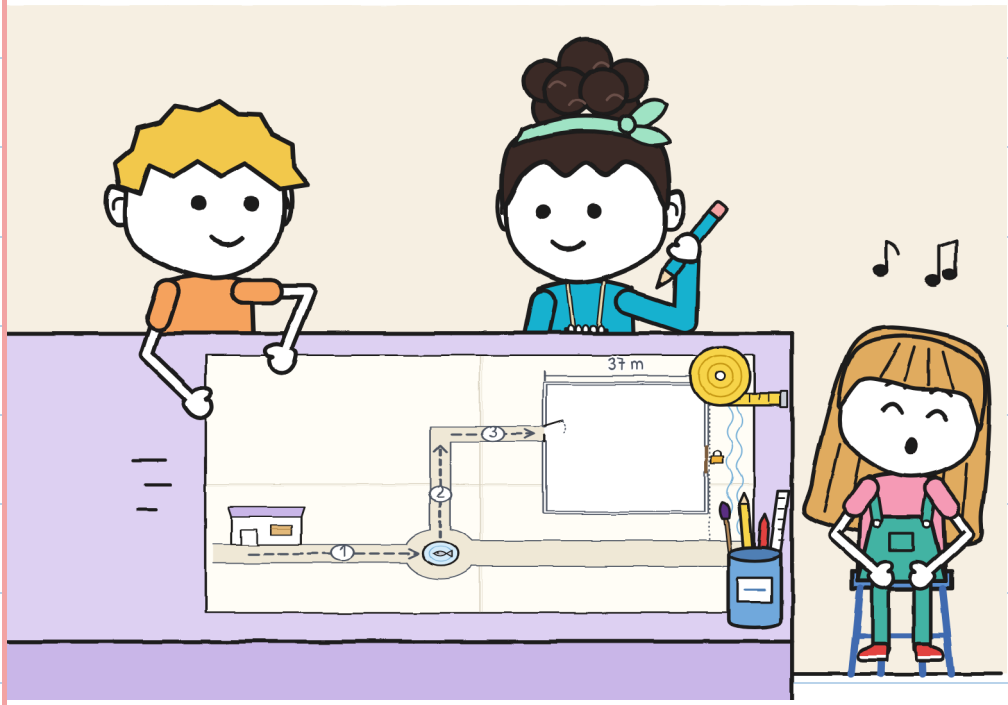
나도 그래. —V.

늦었지만, 들어가. —E.

나는 계산대에 약도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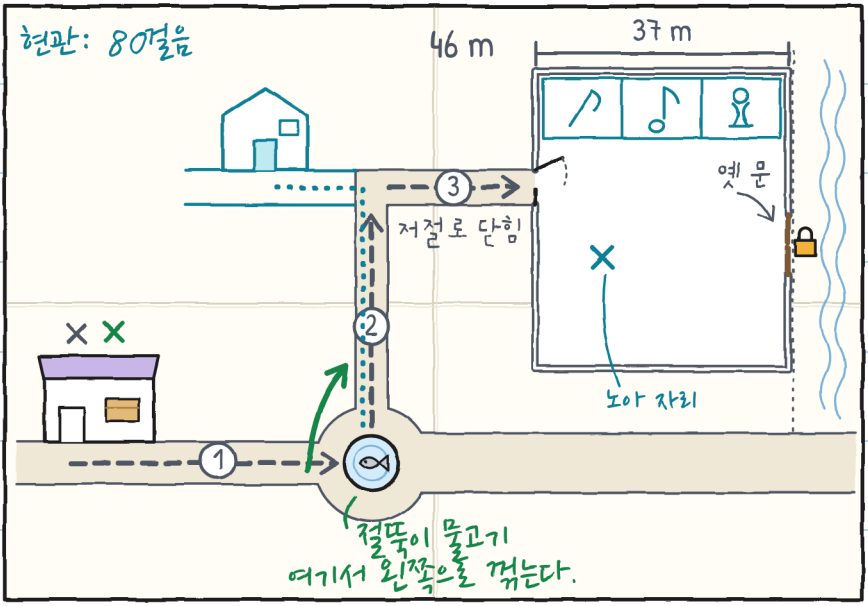
"네 몫이 없어." 내가 노아에게 말했다.

"여기에 그려도 돼?" 노아가 물었다.



노아가 자기네 길과 걸음을
덧붙였다. 나는 미터를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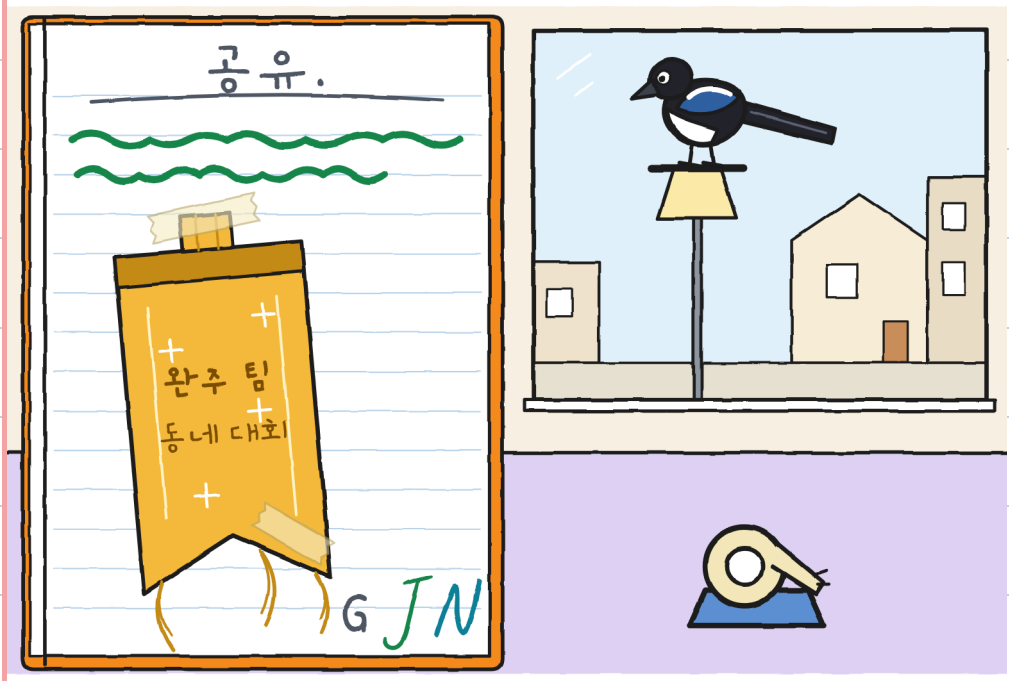
셋의 약도




둘이 절뚝이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안다.

엄청 재밌어. 우리가 이야기를 영망으로 했어. —J.

훌리타는 리본을 손목에 묶고
있었다. 실이 풀려 있었다.
우리는 리본을 '공유' 밑에 붙였다.




내 공책은 잘 안 닫혀. —J.

노아가 읽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돌멩이는 '턱'이라고 말하지
않아." 노아가 말했다.
나는 작대기를 지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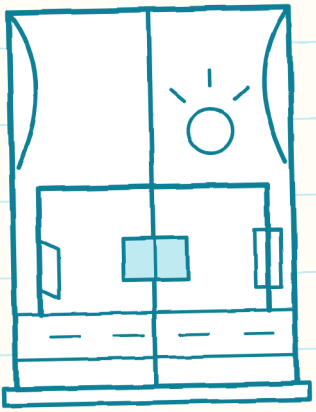

지우지 마. 내 거야. —J.

일요일 해 뜰 때 노아가 지켜보았다.
9시에 쪽지를 가져왔다.

7:38: 미니 극장, 접힌 채로.

7:44: 해가 뜸. 움직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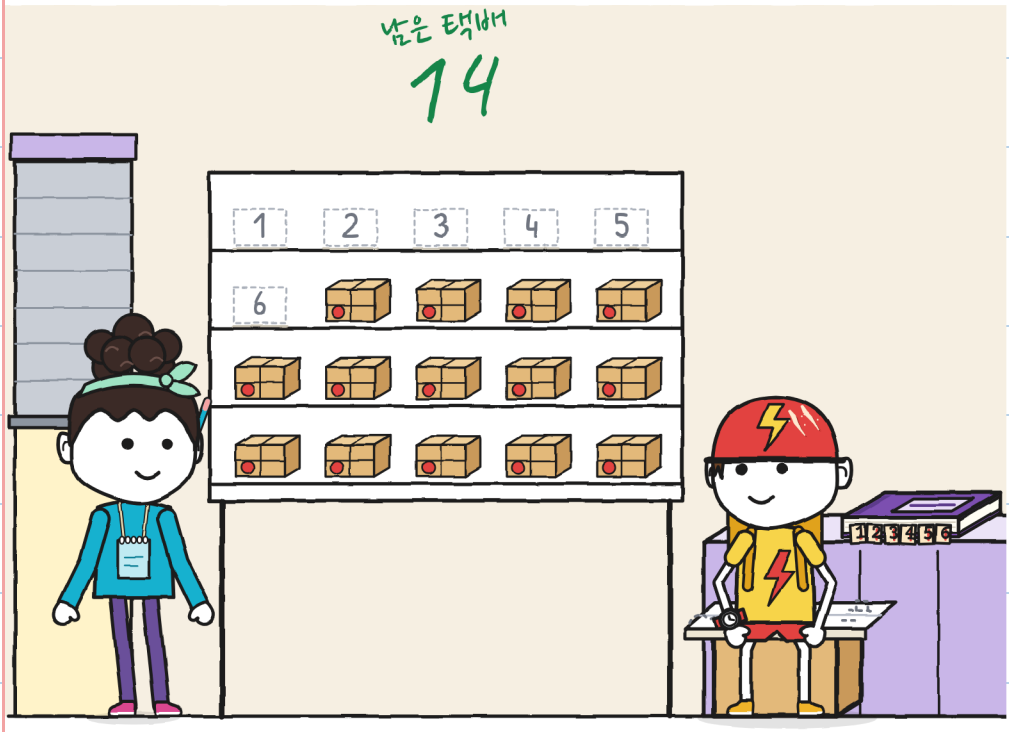
7:50: 그대로.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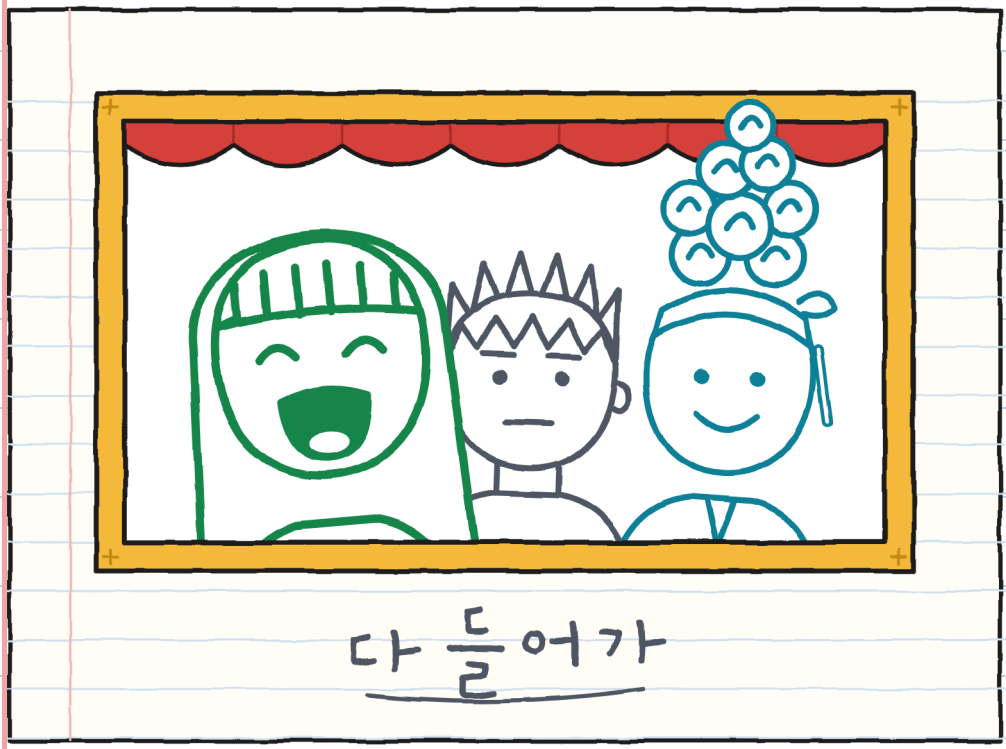


나보다 잘 지키고 잘 세. —J.

마라 아줌마가 셔터를 조금
올렸다. 나는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네 개와 빈 자리 여섯 개.
노아는 문 옆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니 극장의 창을
그렸다. 비어 있는 창을.
저마다 창 안에 자기
색으로 자기를 그렸다.




공유는 공유야. -J.

# 구간별로:

| 구간 | | 누가 들었나 | 누가 안내했나 | 다시 해야 했던 것 |
|---|---|---|---|---|
|  | 가게 → 절뚝이 물고기 분수 | 구니와 노아 | 훌리타 | 회전 (3번) |
|  | 분수 → 모퉁이 |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없음 (그런데 천천히) |
|  | 모퉁이 → 마당 | 구니와 훌리타 | 노아 | 입구: 지도가 낡았음 |
|  | 토요일 | 셋 모두 | 셋이, 돌아가며 | 벨트 (세 번째 구멍) |
|  | 우리 전 | 마라, 혼자 | 아무도 | 아홉 번 운반 |
|  | R. | ? | ? | 모른다 |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알림  |
|---|---|---|---|---|
| 1 | 구니와 노아 | 훌리타 | 훌리타 | 훌리타 |
| 2 |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구니 | 구니 |
| 3 | 구니와 훌리타 | 노아 | 노아 | 노아 |

빈 칸은 없음. —J.

# 불가능 배달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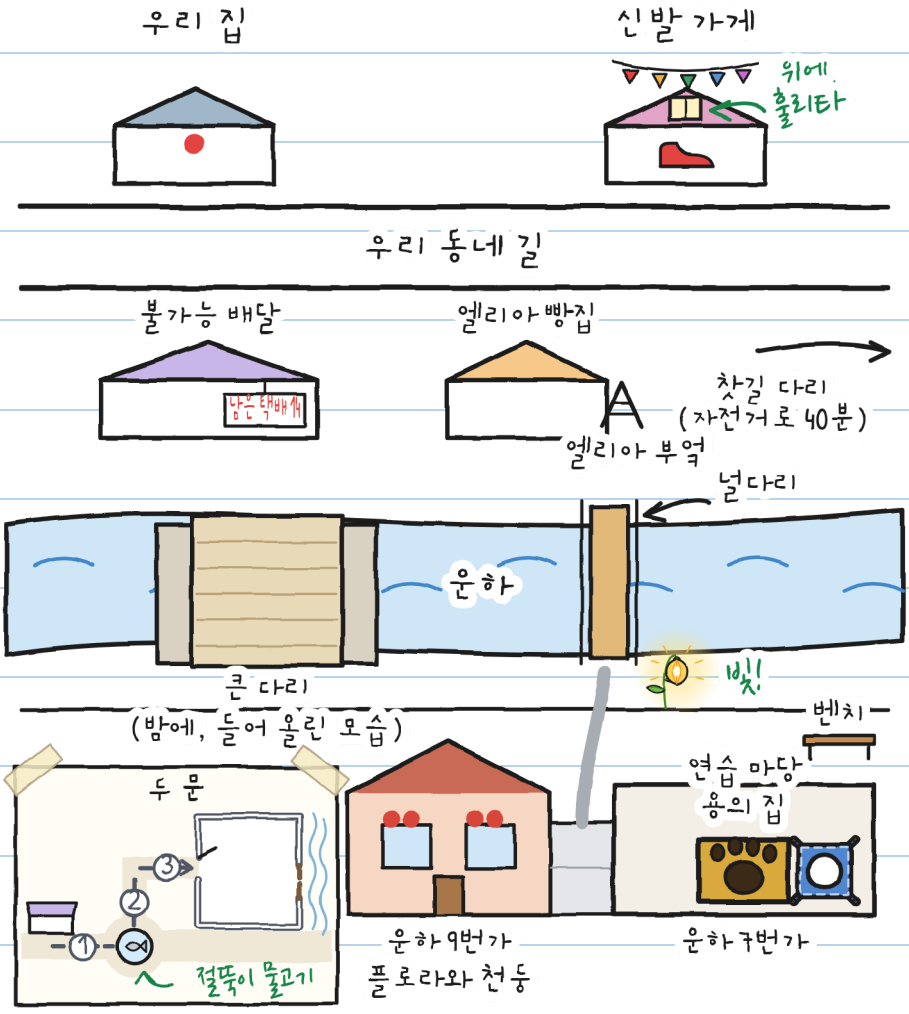
(곧 나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이미 잠옷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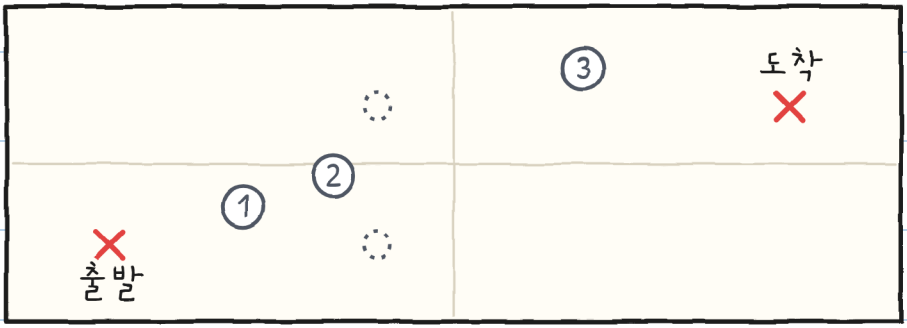
나 말고 누가 깨어 있지? —J.

# 동네 (여섯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위에 흘리타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맘폰 택배
엘리아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엘리아 부엌
널다리
운하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빛!
벤치
두 문
연습 마당
용의 집
운하 9번가
플로라와 천둥
운하 7번가
절뚝이 물고기

# 너의 경로

## 누가 들까? 누가 안내할까?




### 셋 측정기

| | 들기 | 안내 | 길 열기 | 알림 |
|---|---|---|---|---|
| 구간 1 | | | | |
| 구간 2 | | | | |
| 구간 3 | | | | |

겹치는 이름은 바꿔. —J.

#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 여섯 가지 사이즈, 20개 넘는 언어.

**사이즈 XXS · PRE-A1**
구니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자리를 남겨 뒀어. '공유'라는 단어가 보여?

**사이즈 XS · A1**
단어를 하나 썼다. 반 쪽은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S · A2**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M · B1**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L · B2**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쓰고,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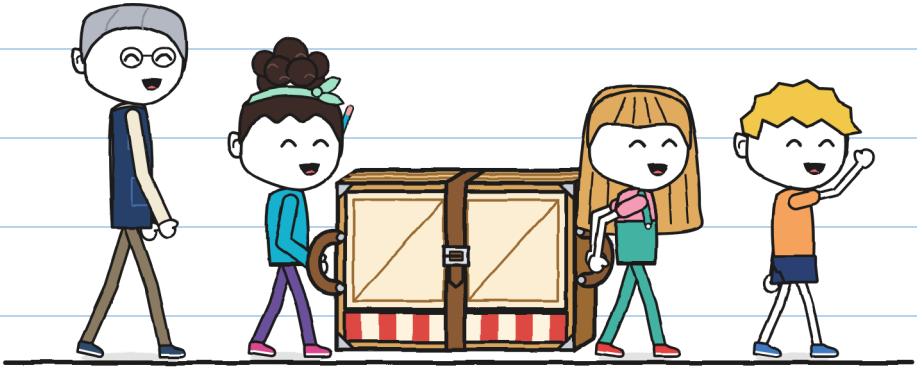
각자 자기 사이즈로.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 진짜로 옮길 때 해야 할 일

1. 나가기 전에 길 전체를 봐.
2. 한 사람은 짐 없이 앞서 가며 문을 열고 알려 줘.
3. 손은 손잡이에. 경첩과 걸쇠에서 멀리.
4. 짐을 들고는 뛰지도, 겨루지도 마.
5. 누가 '멈춰'라고 하면 모두 멈춰.
6. 먼저 바닥에 내려놓아. 그다음에 따져.
7. 큰 물건은 어른과 둘이 펼치고 접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진짜가 아닌 일을 표시해.



아는 게 있으면 먼저 말해. —J.